

463만권 BEST SELLER (2006~2020 누적 판매 1위)

2022 수능·학평 대비

REAL ORIGINAL

수능기출 5개년 [35회] 모의고사

2022 리얼 오리지널

ALL
NEW

The newest edition

[교재 구성] 문제편+해설편+정답률+빠른 정답+OMR 카드

2015
개정교육과정
전격 반영

고3 생활과 윤리

2017~2021학년도 최신 5개년 [수능+모평+학력평가] 기출 문제 35회
2015 개정교육과정을 반영하고 우수 문항을 엄선한 실전 모의고사
[new explanation] 해설편에 [문제를 수록]하여 학습 효과 UP
전회분 등급 컷·정답률·OMR 체크카드를 부록으로 제공

2022 수능·학평 대비

REAL ORIGINAL

수능기출 5개년 모의고사

고3 생활과 윤리

Contents

차례

03월	01 회	2020학년도	3월 전국연합 학력평가	001쪽
	02 회	2019학년도	3월 전국연합 학력평가	005쪽
	03 회	2018학년도	3월 전국연합 학력평가	009쪽
	04 회	2017학년도	3월 전국연합 학력평가	013쪽
	05 회	2016학년도	3월 전국연합 학력평가	017쪽
04월	06 회	2020학년도	4월 전국연합 학력평가	021쪽
	07 회	2019학년도	4월 전국연합 학력평가	025쪽
	08 회	2018학년도	4월 전국연합 학력평가	029쪽
	09 회	2017학년도	4월 전국연합 학력평가	033쪽
	10 회	2016학년도	4월 전국연합 학력평가	037쪽
06월	11 회	2021학년도	6월 모의평가	041쪽
	12 회	2020학년도	6월 모의평가	045쪽
	13 회	2019학년도	6월 모의평가	049쪽
	14 회	2018학년도	6월 모의평가	053쪽
	15 회	2017학년도	6월 모의평가	057쪽
07월	16 회	2020학년도	7월 전국연합 학력평가	061쪽
	17 회	2019학년도	7월 전국연합 학력평가	065쪽
	18 회	2018학년도	7월 전국연합 학력평가	069쪽
	19 회	2017학년도	7월 전국연합 학력평가	073쪽
	20 회	2016학년도	7월 전국연합 학력평가	077쪽
09월	21 회	2021학년도	9월 모의평가	081쪽
	22 회	2020학년도	9월 모의평가	085쪽
	23 회	2019학년도	9월 모의평가	089쪽
	24 회	2018학년도	9월 모의평가	093쪽
	25 회	2017학년도	9월 모의평가	097쪽
10월	26 회	2020학년도	10월 전국연합 학력평가	101쪽
	27 회	2019학년도	10월 전국연합 학력평가	105쪽
	28 회	2018학년도	10월 전국연합 학력평가	109쪽
	29 회	2017학년도	10월 전국연합 학력평가	113쪽
	30 회	2016학년도	10월 전국연합 학력평가	117쪽
수능	31 회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21쪽
	32 회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25쪽
	33 회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29쪽
	34 회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33쪽
	35 회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3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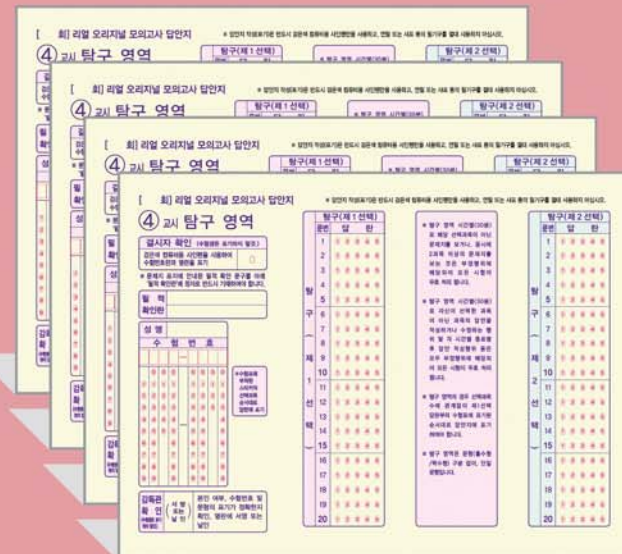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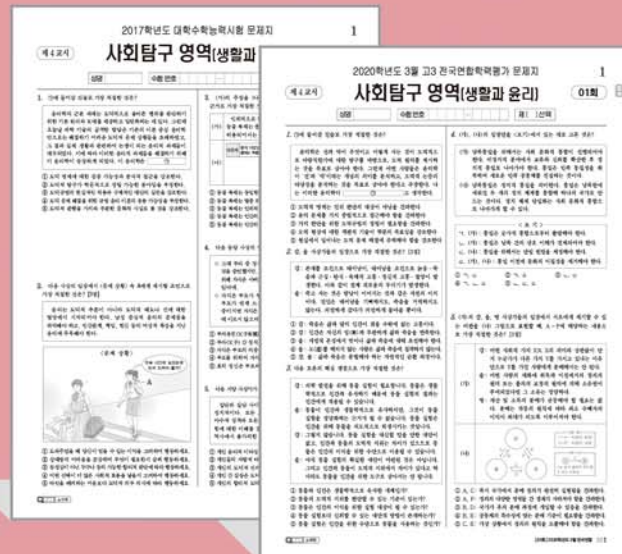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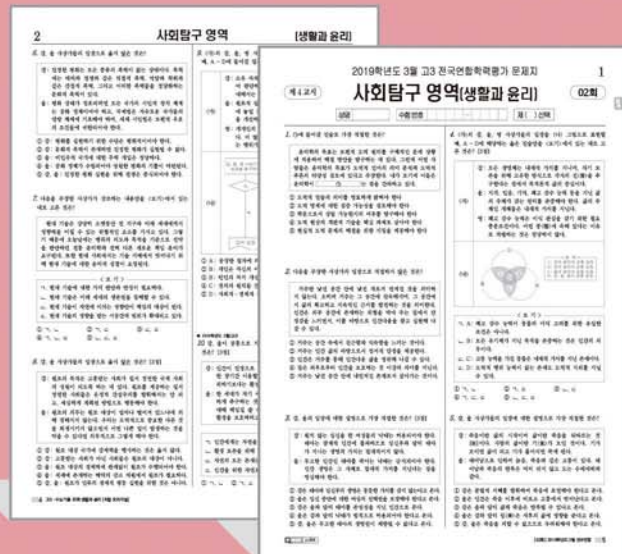
● 정답과 해설

책속의 책

구성과 특징

Structure & Features

35년의 모의고사를 실전과 똑같이 풀어보면
내 실력과 점수는 반드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1

실제 시험지와 똑같은 문제지

수능기출 [5개년] 모의고사는 총 35회분의 문제가 수록되어 있으며, 실전과 동일하게 학습할 수 있습니다.

- 1 리얼 오리지널 모의고사는 실제 시험지의 크기와 느낌을 그대로 살려 실전과 동일한 조건 속에서 문제를 풀어 볼 수 있습니다.
- 2 문제를 풀기 전에 먼저 학습 체크 표에 학습 날짜와 시간을 기록하고, 타이머를 작동해 실천처럼 문제를 풀어 보십시오.

2

2015 개정교과를 반영한 [5개년] 기출

새 교육과정을 반영해 최근 5개년 동안 시행된 수능 기출 [35회분]의 문제를 수록하였습니다.

- 1 기존 문제 중 이전 교육과정의 문제는 삭제 후 새 교육과정의 우수 문항을 중심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 2 새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2021학년도 문제도 모두 수록했으며 총 35회분으로 2022 수능을 완벽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3

실전과 동일한 OMR 체크카드

정답 마킹을 위한 OMR 체크카드는 실전력을 높여주며 부록 형태로 모의고사 문제편 뒷부분에 수록했습니다.

- 1 OMR 체크카드는 실전과 동일한 형태로 제공되며, 모의고사에서 마킹 연습은 또 하나의 실전 연습입니다.
- 2 답을 밀려 썼을 때 교체하는 연습도 중요하며, 추가로 OMR 체크카드가 필요하면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6

2022 수능 [1등급]을 위한 실전 마무리

2022학년도 수능에서 사탐·과탐 [1등급]을 목표로 한다면 수능기출 35회 모의고사 문제는 필수입니다.

- 1 그 어떤 문제도 기출 문제보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 실제 시험과 똑같은 시험지로 실천처럼 풀어보면 점수는 반드시 올라갑니다.
- 2 실제 수능과 똑같은 문제지와 제한된 시간에 맞추어 OMR 카드를 이용한 35회의 실전 연습은 수능 1등급을 위해 필수입니다.

5

해설편 문제 수록 & 답지 선택

해설편에 문제를 모두 수록해 학습이 편리하고, 해설도 강화되어 혼자서도 학습이 충분합니다.

- 1 문제편과 해설편을 동시에 펼쳐서 공부하지 않아도 OK! 해설편에 문제와 보기를 수록하여 학습이 편리해졌습니다.
- 2 선택들은 어떤 정답을 선택했는지? [정답 선택률]을 수록해 문제의 난이도까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4

빠른 정답 체크표 & 등급 컷 제공

문제를 풀 후 정답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답 체크표]와 등급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등급 컷]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 1 리얼 오리지널 시리즈는 책속의 책 중간 간지를 오려서 책갈피로 사용이 가능한 [빠른 정답 체크표]를 제공합니다.
- 2 화치별로 등급 컷을 제공하므로 문제를 풀고 바로 자신의 실력을 확인할 수 있으며, 등급 컷은 학습 체크표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실전은 연습처럼!
연습은 실전처럼!

수능 시험장이라면 많은 학생들이 낯선 환경과 긴장감 때문에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최소화하려면 실제 수능 시험지와 똑같은 크기의 문제지와 OMR 카드를 사탐을 정해놓고, 동일한 조건 속에서 '실전은 연습처럼! 연습은 실전처럼!' 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분별 학습 체크 & 등급 컷

● 생활과 윤리 | 회분당 학습 시간(30분)

회분	학습 날짜		학습 시간	틀린 문제	채점 결과		등급 컷 원점수							
					점수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01회 2020학년도 3월	월	일	시 분 ~ 시 분				47	42	37	30	22	15	11	7
02회 2019학년도 3월	월	일	시 분 ~ 시 분				43	38	33	27	21	15	9	8
03회 2018학년도 3월	월	일	시 분 ~ 시 분				44	39	34	29	23	16	11	8
04회 2017학년도 3월	월	일	시 분 ~ 시 분				41	38	33	28	22	15	10	7
05회 2016학년도 3월	월	일	시 분 ~ 시 분				42	39	34	28	23	16	11	7
06회 2020학년도 4월	월	일	시 분 ~ 시 분				41	36	31	25	19	13	9	7
07회 2019학년도 4월	월	일	시 분 ~ 시 분				44	39	35	30	24	16	12	8
08회 2018학년도 4월	월	일	시 분 ~ 시 분				45	42	38	32	24	15	11	7
09회 2017학년도 4월	월	일	시 분 ~ 시 분				45	42	37	30	24	17	11	7
10회 2016학년도 4월	월	일	시 분 ~ 시 분				44	41	38	34	28	20	14	7
11회 2021학년도 6월	월	일	시 분 ~ 시 분				47	44	39	33	25	15	10	8
12회 2020학년도 6월	월	일	시 분 ~ 시 분				47	43	37	30	23	16	11	8
13회 2019학년도 6월	월	일	시 분 ~ 시 분				45	41	35	29	22	15	11	7
14회 2018학년도 6월	월	일	시 분 ~ 시 분				45	42	37	32	25	17	10	7
15회 2017학년도 6월	월	일	시 분 ~ 시 분				44	42	38	33	27	18	11	7
16회 2020학년도 7월	월	일	시 분 ~ 시 분				46	41	33	26	19	13	10	7
17회 2019학년도 7월	월	일	시 분 ~ 시 분				47	43	38	29	19	13	10	7
18회 2018학년도 7월	월	일	시 분 ~ 시 분				48	44	36	30	22	12	10	7
19회 2017학년도 7월	월	일	시 분 ~ 시 분				47	41	33	26	17	11	10	7
20회 2016학년도 7월	월	일	시 분 ~ 시 분				47	43	38	31	22	13	8	7
21회 2021학년도 9월	월	일	시 분 ~ 시 분				48	45	39	32	23	14	10	7
22회 2020학년도 9월	월	일	시 분 ~ 시 분				48	45	39	31	22	14	10	8
23회 2019학년도 9월	월	일	시 분 ~ 시 분				50	46	41	31	21	13	10	7
24회 2018학년도 9월	월	일	시 분 ~ 시 분				47	44	40	36	28	18	10	5
25회 2017학년도 9월	월	일	시 분 ~ 시 분				43	40	35	28	21	13	10	6
26회 2020학년도 10월	월	일	시 분 ~ 시 분				44	41	35	29	22	16	11	7
27회 2019학년도 10월	월	일	시 분 ~ 시 분				47	43	37	28	19	12	10	7
28회 2018학년도 10월	월	일	시 분 ~ 시 분				43	39	35	26	16	11	6	6
29회 2017학년도 10월	월	일	시 분 ~ 시 분				47	45	39	29	18	10	-	7
30회 2016학년도 10월	월	일	시 분 ~ 시 분				45	40	35	27	19	11	9	6
31회 2021학년도 수능	월	일	시 분 ~ 시 분				50	47	43	35	26	19	14	8
32회 2020학년도 수능	월	일	시 분 ~ 시 분				48	46	42	37	28	21	12	7
33회 2019학년도 수능	월	일	시 분 ~ 시 분				50	47	44	38	29	21	13	9
34회 2018학년도 수능	월	일	시 분 ~ 시 분				50	47	44	39	30	21	15	10
35회 2017학년도 수능	월	일	시 분 ~ 시 분				47	45	42	38	31	23	15	10

※ 등급 컷 원점수는 추정치입니다.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학습 참고용으로 활용하십시오.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생활과 윤리)

01회

성명

수험 번호

제 () 선택

1.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윤리학은 선과 악이 무엇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도덕적으로 바람직한가에 대한 탐구를 바탕으로, 도덕 원리를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윤리학이 ‘선’과 ‘악’이라는 개념의 의미를 분석하고, 도덕적 논증의 타당성을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는 이러한 윤리학이 ㉠고 생각한다.

- ① 도덕적 명제는 진위 판단의 대상이 아님을 간과한다
- ② 윤리 문제를 가지 중립적으로 접근해야 함을 간과한다
- ③ 가치 판단을 위한 도덕규범의 정립이 필요함을 간과한다
- ④ 도덕 현상에 대한 객관적 기술이 학문의 목표임을 강조한다
- ⑤ 현실에서 일어나는 도덕 문제 해결에 주력해야 함을 강조한다

2.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남이,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음·죽음과 근심·탄식·육체적 고통·정신적 고통·절망이 발생한다. 이와 같이 전체 괴로움의 무더기가 발생한다.
을: 죽고 사는 것은 밤낮이 이어지는 것과 같은 자연의 이치이다. 진인은 태어남을 기뻐하지도, 죽음을 거역하지도 않는다. 의연하게 갔다가 의연하게 돌아올 뿐이다.

- ① 갑: 죽음은 삶과 달리 인간이 겪을 수밖에 없는 고통이다.
- ② 갑: 인간은 자신의 업(業)과 무관하게 삶과 죽음을 반복한다.
- ③ 을: 자연적 본성에서 벗어나 삶과 죽음에 대해 초연해야 한다.
- ④ 을: 도(道)를 헤치지 않는 사람은 삶과 죽음에 집착하지 않는다.
- ⑤ 갑, 을: 삶과 죽음은 분별해야 하는 자연적인 순환 과정이다.

3.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의학 발전을 위해 동물 실험이 필요합니다. 동물은 생물학적으로 인간과 유사하기 때문에 동물 실험의 결과는 인간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을: 동물이 인간과 생물학적으로 유사하지만, 그것이 동물 실험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동물 실험은 인간을 위해 동물을 의도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입니다.
갑: 그렇지 않습니다. 동물 실험을 대신할 믿을 만한 대안이 없고, 인간과 동물의 도덕적 지위는 차이가 있으므로 동물은 인간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을: 아직 동물 실험의 확실한 대안이 마련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인간과 동물이 도덕적 지위에서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동물을 인간을 위한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 ① 동물과 인간은 생물학적으로 유사한 개체인가?
- ② 동물의 도덕적 지위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가?
- ③ 동물은 인간의 이익을 위한 실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 ④ 동물 실험보다 신뢰할 수 있는 대안적 방법이 존재하는가?
- ⑤ 동물 실험은 인간을 위한 수단으로 동물을 사용하는 것인가?

4. (가), (나)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가) 남북통일을 위해서는 사회 문화적 통합이 선행되어야 한다. 비정치적 분야에서 교류와 신뢰를 확산한 후 정치적 통일로 나아가야 한다. 통일은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여 새로운 민족 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이다.
- (나) 남북통일은 정치적 통일을 의미한다. 통일은 남북한에 세워진 두 개의 정치 체제를 통합해 하나의 국가로 만드는 것이다. 정치 체제 단일화는 사회 문화적 통합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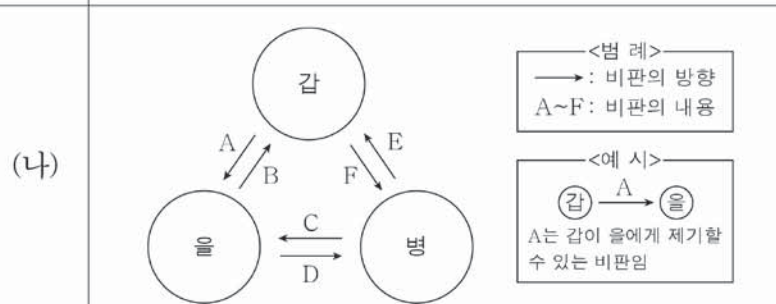
< 보 기 >

- ㄱ. (가): 통일은 군사적 통합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 ㄴ. (가): 통일은 남북 간의 상호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 ㄷ. (나): 통일을 위해서는 단일 헌법을 제정해야 한다.
- ㄹ. (가), (나): 통일 이전에 문화의 이질성을 제거해야 한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5.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갑: 어떤 사회적 가치 X도 X의 의미와 상관없이 단지 누군가가 다른 가치 Y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Y를 가진 사람에게 분배해서는 안 된다.
을: 어떤 사람의 재화에 취득과 이전에서의 정의의 원리 또는 불의의 교정의 원리에 의해 소유권이 부여되었다면 그 소유는 정당하다.
병: 재산 및 소득의 분배가 균등해야 할 필요는 없다. 분배는 차등의 원칙에 따라 최소 수혜자의 이익이 최대가 되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 ① A, C: 복지 국가에서 분배 정의가 완전히 실현됨을 간과한다.
- ② A, F: 정의의 다양한 영역들 간 경계가 사라져야 함을 간과한다.
- ③ B, D: 국가가 부의 분배 과정에 개입할 수 있음을 간과한다.
- ④ B, E: 공동체의 특수성에 맞는 분배 기준이 필요함을 간과한다.
- ⑤ C, E: 가상 상황에서 정의의 원칙을 도출해야 함을 간과한다.

6.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관점에서 <사례> 속 A에게 제시할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사람에게 사단(四端)이 있는 것은 사지[四體]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다. 사단이 있는데도 스스로 인의(仁義)를 행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해치는 사람이다.
<사례> 고등학생 A는 등교 시간에 늦었지만, 길을 잃고 울고 있는 아이를 보고 도와주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 ① 자신과 남을 분별하지 않는 사랑[兼愛]을 실천하세요.
 ② 인간이 선천적으로 지닌 본성[性]에 따라 행동하세요.
 ③ 순선(純善)한 본성을 형성하여 도덕적인 선택을 하세요.
 ④ 인위적 규범을 버리고 자연의 도(道)에 따라 행동하세요.
 ⑤ 타고난 본성을 극복하여 측은지심(惻隱之心)을 발휘하세요.

7.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성은 본질적으로 결혼과 출산을 전제로 하는 안정감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럴 경우에 사랑하는 부부를 중심으로 가정이 지속될 수 있다.
을: 성은 본질적으로 즐거움 그 자체를 추구하는 것이다. 성은 자발적 동의를 바탕으로 해악 금지의 원칙을 준수하는 한에서 이루어지는 즐거운 경험이다.

- ① 갑: 성에 대한 책임보다는 성적인 자유를 중시해야 한다.
 ② 갑: 성의 생식적 가치보다 쾌락적 가치를 중시해야 한다.
 ③ 을: 성은 서로의 사랑을 바탕으로 한 행위로 제한되어야 한다.
 ④ 을: 성은 자유로운 활동으로 도덕적 제약 없이 이뤄져야 한다.
 ⑤ 갑, 을: 성은 상대 의사를 존중하지 않으면 정당화될 수 없다.

8. 다음 칼럼의 입장에서 지지할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00신문	0000년 00월 00일
칼럼	
최근 여러 나라에서 저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저작물을 사람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등의 조건을 표시하자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왜냐하면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자들이 제한된 조건 내에서 대가 없이 이용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도 이용자들은 이와 같은 저작자의 의사를 알지 못해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운동은 저작자의 권리를 존중하면서도 정보를 확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계속 활성화되어야 한다.	

- ① 저작권 보호는 새로운 창작 활동의 기회를 박탈한다.
 ② 저작자의 저작권 보호와 정보의 공유는 양립 가능하다.
 ③ 모든 저작물은 인류가 생산한 공유 자산으로 보아야 한다.
 ④ 이용 허락 조건 표시가 없는 저작물은 공공재로 보아야 한다.
 ⑤ 저작권을 사유재산으로 인정해야 정보의 교류가 활성화된다.

9. 갑, 을, 병 사상가들 모두가 질문에 옳게 대답한 것은? [3점]

갑: 형벌이 지속적 효과를 가질 때 범죄를 더 잘 예방할 수 있다. 종신 노역형이 사형보다 범죄 억제에 효과적이다.
을: 형벌은 정언 명령이다. 살인자는 사형에 처해져야 한다. 사형의 불법성을 주장하는 것은 법의 왜곡이다.
병: 형벌의 목적은 공리의 원칙에 따른 모든 위법 행위 방지, 최악의 위법 행위 방지, 해악 감소, 비용 최소화이다.

	질문	대답		
		갑	을	병
①	형벌은 범죄자의 인격을 존중하며 실시되어야 하는가?	예	아니요	예
②	형벌은 사회적 선을 위하여 범죄자에게 부과되어야 하는가?	예	아니요	예
③	사형은 시민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허용되어야 하는가?	아니요	예	예
④	형벌의 목적은 시민들의 범죄 예방으로 제한되어야 하는가?	아니요	예	아니요
⑤	형벌의 정도는 위법 행위에서 얻는 이득의 가치를 능가하지 말아야 하는가?	아니요	아니요	예

10. (가)를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나)의 갑, 을, 병에게 제기할 수 있는 적절한 비판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우리는 세계가 하나라는 생각에 기초하여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에 따라 국가적인 경계를 넘어서 원조를 의무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나)	갑: 우리는 모든 사람을 배려할 수 없다. 우리는 배려자로서 우리 앞의 타자를 먼저 만나야 한다. 을: 원조는 질서 정연한 사회체제를 설립하려는 만민들을 돕는 큰 기획의 한 방편이다. 병: 개인은 정당하게 얻은 소유물에 대해 타인의 고통과 무관하게 절대적 소유 권리를 지닌다.

< 보 기 >	
ㄱ. 갑은 친소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원조해야 함을 간과한다.	ㄴ. 을은 공리의 원칙을 해외 원조에 적용해야 함을 간과한다.
ㄷ. 병은 원조를 위해 재산의 일부를 기부해야 함을 간과한다.	ㄹ. 갑, 을은 원조 주체가 개인으로 한정되어야 함을 간과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11. (가)의 사상가 갑, 을, 병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할 때, A ~ D에 들어갈 질문으로 옳은 것은? [3점]

(가)	갑: 어떤 생명이 지각과 기억이 있고, 쾌고를 느낄 수 있다면 삶의 주체로서 도덕적 권리를 지닌다. 을: 모든 생명을 상호 연결된 전체의 평등한 구성원으로 보는 ‘생명 중심적 평등’을 지향해야 한다. 병: 모든 생명은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기 때문에 인간의 필요와 관계없이 고유한 가치를 지닌다.
(나)	

- ① A: 인간의 이익을 위해 동물을 학대하는 것은 잘못인가?
 ② B: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은 내재적 가치를 지니는가?
 ③ B: 쾌고 감수 능력이 있는 생명은 도덕적 지위를 지니는가?
 ④ C: 생태계를 도덕적 고려 대상으로 여기지 말아야 하는가?
 ⑤ D: 생태계를 통제하려는 시도를 하지 말아야 하는가?

12.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우리는 시민 불복종을 통해 우리 입장을 호소할 권리를 갖는다. 우리가 저항하는 부정의는 시민의 평등한 자유와 공정한 기회 균등을 분명히 위반한 것이다. 거의 정의로운 국가에서는 합당한 저항에 대한 보복적 억압은 없지만 우리 행위가 효과적인 호소가 되도록 계획해야 한다. 그리고 그 행위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 보 기 >	
ㄱ. 시민 불복종은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정당화될 수 있는 합당한 행위인가?	ㄴ. 시민 불복종은 평등한 자유의 원칙에 어긋나는 법만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가?
ㄷ. 시민 불복종은 민주 사회를 특징짓는 공공의 정의관을 바탕으로 생겨나는 것인가?	ㄹ. 시민 불복종은 입헌 체제를 유지함에 있어 합법적이며 도덕적으로 옳은 방식인가?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13.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선왕은 예의를 제정함으로써 분별하여 가난하고 부유하고 천하고 귀한 부류가 있게 하였으니 이것이 천하를 기르는 근본이다. ○ 사람이 김매고 밭 가는 일을 쌓아 농부가 되고, 짊고 다듬는 일을 쌓아 공인이 되며, 재화를 매매하는 일을 쌓아 상인이 되듯이, 예절과 의리를 쌓으면 군자가 된다.
--

< 보 기 >	
ㄱ. 예를 바탕으로 사람들의 직분을 나누어야 질서가 유지된다.	ㄴ. 각 분야에 능한 사람이 그 분야를 이끌어 가는 것이 좋다.
ㄷ. 사물에 정통한 사람은 누구나 통치하는 일을 할 수 있다.	ㄹ. 서민의 자손이라도 재능과 덕을 갖추면 관리가 될 수 있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14.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종교 간 화해를 위해서는 비공식 대화와 공식 대화, 학문적 대화, 일상적 대화 등 모든 차원의 대화가 요청된다. 이러한 종교 간 대화는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해 선한 의지와 개방된 자세뿐만 아니라 연대적 인식이 요구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우리를 이끌어 갈 세 가지 기본 명제는 다음과 같다. ○ 국가 간 세계 윤리 없이 인간의 공생·공존은 불가능하다. ○ 종교 간 평화 없이 국가 간 평화는 있을 수 없다. ○ 종교 간 대화 없이 종교 간 평화는 있을 수 없다.

- ① 대화 역량은 종교 간 평화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것이다.
 ② 참된 하나의 종교를 통해서만 종교 간 평화가 보장된다.
 ③ 종교 간 평화는 여러 종교의 통합을 통해 가장 잘 실현된다.
 ④ 각자 자신의 종교적 정체성을 포기할 때 세계 평화가 실현된다.
 ⑤ 각 종교가 자신의 종교에 대해 반성적 성찰을 할 필요는 없다.

15.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미적인 것은 윤리적인 것의 상징이며, 이러한 관점에서만 미적인 것은 다른 모든 사람들의 동의를 요구한다. 을: 예술에서 선한 의도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 형편없는 예술은 모두 선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병: 우아함과 좋은 리듬은 좋은 말씨와 좋은 성품을 닮고, 추함과 나쁜 리듬은 나쁜 말씨와 나쁜 성품을 닮는다.

- ① 갑: 인간의 미적 체험은 도덕성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② 을: 진정한 감상자는 아름다운 것에서 도덕적 의미를 찾는다.
 ③ 병: 미적 가치와 도덕적 가치는 서로 독립된 별개의 가치이다.
 ④ 갑, 을: 윤리적인 공감 능력은 예술 작품 창작에 필수적이다.
 ⑤ 갑, 병: 미는 순수하게 이성적인 것으로 감상과는 무관하다.

16. (가) 사상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공손하되 예(禮)가 없으면 힘이 들고, 신중하되 예가 없으면 두렵게 되고, 용맹하되 예가 없으면 난을 일으키고, 정직하되 예가 없으면 각박하게 된다.
(나)	남녀의 구별이 있어야 ㉠의 의(義)가 있고, ㉠의 의가 있어야 부자의 친함이 있고, 부자의 친함이 있어야 군신의 의가 있다. 그러므로 혼례는 예의 근본이다.

- 서로에게 자애와 효도를 실천해야 하는 호혜적 관계이다.
- 삶의 동반자로서 서로 정조를 지켜야 하는 천륜 관계이다.
- 가장을 중심으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수직적 관계이다.
- 장유의 서열과 친애를 근본으로 하는 상호 존중의 관계이다.
- 서로의 역할을 구분하면서도 상호 보완하는 협력적 관계이다.

17.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가 지지할 견해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이기심을 억제해야 한다면 사회는 이기심에 대한 제재로 갈등과 폭력까지도 승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 가장 친밀한 개인들 간의 관계에서는 필요치 않은 강제적 수단이 집단 간의 조화와 정의의 확립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강제력의 요소는 윤리적으로 정당한 범주에 귀속시킬 수 있다.

— < 보 기 > —

- 집단 이기주의는 집단 구성원의 이성적 판단을 방해한다.
- 개인의 합리성이 제고되면 집단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
- 집단 간의 갈등은 개인의 도덕적인 문제로 환원될 수 있다.
- 폭력을 수반하는 강제력도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 ㄱ, ㄷ
- ㄱ, ㄷ
- ㄴ, ㄷ
- ㄱ, ㄴ, ㄷ
- ㄴ, ㄷ, ㄹ

18.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언어, 예술, 종교, 이념, 도덕, 가치 등 인간 존재의 상징적 차원에서 작동하는 문화적 폭력은 살인, 빈곤, 억압, 소외, 착취 등 직접적·구조적 폭력의 모든 유형을 관통하며 이들에 정당성과 합법성을 부여함으로써 폭력을 은폐한다. 따라서 진정한 평화는 직접적 폭력의 부재뿐만 아니라, 구조적 폭력과 문화적 폭력의 부재를 지향할 때에만 가능하다.

- 직접적 폭력과 달리 문화적 폭력은 제거할 수 없다.
- 의도되지 않은 폭력은 직접적인 피해를 입힐 수 없다.
- 진정한 평화는 직접적 폭력의 제거로 완전히 실현된다.
- 문화적 폭력은 직접적·구조적 폭력의 발현을 조장한다.
- 직접적·구조적·문화적 폭력들은 항상 동시에 나타난다.

19.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주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과학 분야에서의 이론적 관심과 실천적 관심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과학자는 진리의 발견이라는 자신의 일이 바깥세상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과학자에게는 자연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가치 중립적인 엄밀성을 추구할 내적 의무가 있습니다. 동시에 과학자는 자신의 연구 결과가 인류의 미래에 끼치는 영향력과 책임에 대하여 철학적으로 숙고해야 합니다.



- 과학자는 연구 결과를 자의적으로 검토하고 평가해야 한다.
- 과학자는 내적 책임뿐만 아니라 외적 책임도 지녀야 한다.
- 과학자는 실험 진행의 과정에서 중립적인 관찰자이어야 한다.
- 과학자는 자연을 탐구할 때 연구 윤리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 과학자는 자신의 연구가 인류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해야 한다.

20.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어떤 준칙이 보편적 규범으로 승인되기 위해서는 담론이 필요하다. 나는 담론에 참여한 자들이 합의를 지향하며 그들의 행위 계획을 조정하는 상호 작용을 의사소통이라 부른다. 이때 도달한 합의는 타당성 주장에 대한 상호 인정에 따라 평가된다. 담론의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며, 각자의 개별 상황에 따른 타당성 주장들, 즉 진리 주장, 정당성 주장 및 진실성 주장을 제기해야 한다.

— < 보 기 > —

- 담론의 모든 참여자는 서로를 동등한 인격의 소유자로 대우해야 한다.
- 규범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할 때는 결과에 대한 고려를 해서는 안 된다.
- 담론의 참여자들은 논의에서 합의된 보편적 규범의 실천을 추구해야 한다.
- 어떤 준칙이 보편적 규범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대화 당사자들이 동의해야 한다.

- ㄱ, ㄴ
- ㄱ, ㄷ
- ㄴ, ㄷ
- ㄱ, ㄷ, ㄹ
- ㄴ, ㄷ, ㄹ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생활과 윤리]

02회

성명

수험 번호

제 () 선택

1.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윤리학의 목표는 보편적 도덕 원리를 구체적인 문제 상황에 적용하여 해결 방안을 탐구하는 데 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윤리학의 목표가 도덕적 언어의 의미 분석과 도덕적 추론의 타당성 검토에 있다고 주장한다. 내가 보기에 이들은 윤리학이 ㉠ 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 도덕적 진술의 의미를 명료하게 밝혀야 한다
- 도덕 명제에 대한 검증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 학문으로서 성립 가능한지의 여부를 탐구해야 한다
- 도덕 현상의 객관적 기술을 핵심 과제로 삼아야 한다
- 현실적 도덕 문제의 해결을 위한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

2.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거주란 낯선 공간 안에 낯선 자로서 던져진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거주는 그 공간에 친숙해지며, 그 공간에서 삶의 확고하고 지속적인 근거를 발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은 외부 공간에 존재하는 위협을 막아 주는 집에서 안정감을 느끼면서, 이를 바탕으로 인간다움을 찾고 실현해 나갈 수 있다.

- 거주는 공간 속에서 친근함과 익숙함을 느끼는 것이다.
- 거주는 인간 삶의 바탕으로서 정서적 안정을 제공한다.
- 인간은 거주를 통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다.
- 집은 외부로부터 인간을 보호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 거주는 낯선 공간 안에 내던져진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이다.

3.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들의 낙태는 허용되어야 한다. 태아는 잠재적 인간에 불과하므로 임신부와 달리 태아가 지니는 생명의 가치는 절대적이지 않다.
을: 무고한 인간인 태아를 죽이는 낙태는 금지되어야 한다. 인간 생명은 그 자체로 절대적 가치를 지닌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 갑은 태아와 임신부의 생명은 동등한 가치를 갖지 않는다고 본다.
- 을은 임신 중단에 대한 여성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본다.
- 갑은 을과 달리 태아를 존엄성을 지닌 인간으로 본다.
- 을은 갑과 달리 낙태가 법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 갑, 을은 무고한 태아의 생명권이 제한될 수 없다고 본다.

4.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 ~ D에 해당하는 옳은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갑: 모든 생명체는 내재적 가치를 지니며, 자기 보존을 위해 고유한 방식으로 각자의 선(善)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다. 을: 지각, 믿음, 기억, 쾌고 감수 능력 등을 지닌 삶의 주체가 갖는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삶의 주체인 개체들은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 병: 쾌고 감수 능력은 이익 관심을 갖기 위한 필요 충분조건이다. 어떤 종(種)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나)	

— < 보 기 > —

- A: 쾌고 감수 능력이 동물의 이익 고려를 위한 유일한 조건은 아니다.
- ㄴ. B: 모든 유기체가 지닌 목적을 존중하는 것은 인간의 의무이다.
- ㄷ. C: 고등 능력을 가진 동물은 내재적 가치를 지닌 존재이다.
- ㄹ. D: 도덕적 행위 능력이 없는 존재도 도덕적 지위를 지닐 수 있다.

- ㄱ, ㄴ
- ㄱ, ㄷ
- ㄴ, ㄷ
- ㄱ, ㄷ, ㄹ
- ㄴ, ㄷ, ㄹ

5.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죽음이란 삶의 시작이며 삶이란 죽음을 뒤따르는 것[徒]이다. 사람의 삶이란 기(氣)가 모인 것이다. 기가 모이면 삶이 되고 기가 흩어지면 죽게 된다.
을: 태어남으로 인하여 늙음, 죽음과 같은 고통이 있다. 태어남과 죽음의 반복은 마치 쉬지 않고 도는 수레바퀴와 같다.

- 갑은 분별적 지혜를 발휘하여 죽음에 초연해야 한다고 본다.
- 을은 인간은 죽음 이후에 비로소 고통에서 벗어난다고 본다.
- 갑은 을과 달리 삶과 죽음은 반복될 수 있다고 본다.
- 을은 갑과 달리 업(業)은 사후의 삶에 영향을 준다고 본다.
- 갑, 을은 죽음을 피할 수 없으므로 두려워해야 한다고 본다.

6.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진정한 평화는 모든 종류의 폭력이 없는 상태이다. 폭력에는 테러와 전쟁과 같은 직접적 폭력, 억압과 착취와 같은 간접적 폭력, 그리고 이러한 폭력들을 정당화하는 문화적 폭력이 있다.

을: 평화 상태가 정초되려면 모든 국가의 시민적 정치 체제는 공화 정체인어야 하고, 국제법은 자유로운 국가들의 연방 체제에 기초해야 하며, 세계 시민법은 보편적 우호의 조건들에 국한되어야 한다.

- ① 갑: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은 평화적이어야 한다.
 ② 갑: 문화적 폭력이 존재하면 진정한 평화가 실현될 수 없다.
 ③ 을: 비민주적 국가에 대한 무력 개입은 정당하다.
 ④ 을: 공화 정체가 수립되어야 영원한 평화의 기틀이 마련된다.
 ⑤ 갑, 을: 진정한 평화 실현을 위해 전쟁은 종식되어야 한다.

7.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가 강조하는 내용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현대 기술은 상당히 오랫동안 전 지구와 미래 세대에까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협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행위의 의도와 목적을 기준으로 선악을 판단하던 전통 윤리학과 전혀 다른 새로운 책임 윤리가 요구된다. 또한 현대 사회에서는 기술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 현대 기술에 대한 윤리적 성찰이 요청된다.

— < 보 기 > —

- ㄱ. 현대 기술에 대한 가치 판단과 반성이 필요하다.
 ㄴ. 현대 기술은 미래 세대의 생존권을 침해할 수 있다.
 ㄷ. 현대 기술이 자연에 미치는 영향만이 책임의 대상이 된다.
 ㄹ. 현대 기술의 영향을 받는 시공간적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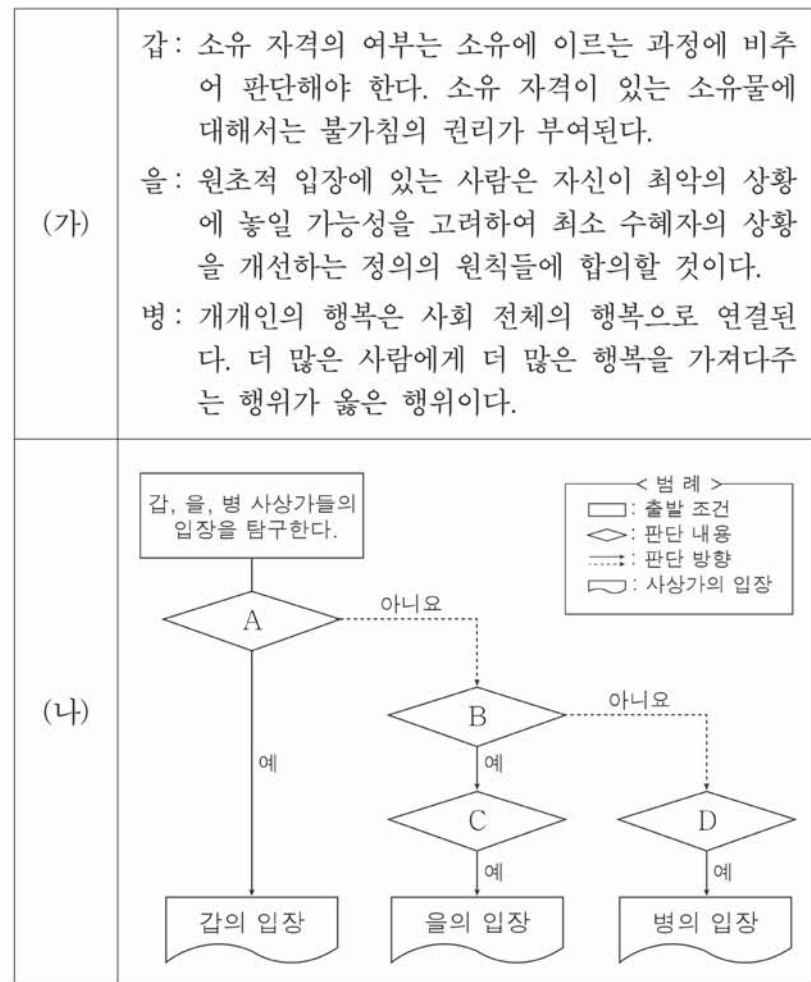
8.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갑: 원조의 목적은 고통받는 사회가 질서 정연한 국제 사회의 성원이 되도록 하는 데 있다. 원조를 제공하는 질서 정연한 사회들은 온정적 간섭주의를 발휘해서는 안 되고, 세심하게 계획된 방법으로 행동해야 한다.

을: 원조의 의무는 원조 대상이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에 의해 정해지지 않는다. 우리는 도덕적으로 중요한 다른 것을 희생시키지 않으면서 어떤 나쁜 일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면 의무적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

- ① 갑: 원조 대상 국가에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은 옳지 않다.
 ② 갑: 고통받는 사회가 아닌 사회들은 원조의 대상이 아니다.
 ③ 을: 원조 대상의 경제력에 관계없이 원조가 수행되어야 한다.
 ④ 을: 세계에 존재하는 해악의 감소 차원에서 원조가 필요하다.
 ⑤ 갑, 을: 원조가 인류의 경제적 평등 실현을 위한 것은 아니다.

9.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할 때, A ~ D에 들어갈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A: 공정한 절차에 의한 재화 분배는 정의로운가?
 ② B: 개인은 자신의 이익 증진에 관심을 가지는가?
 ③ B: 빈민의 처지 개선을 위한 정책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④ C: 정의의 원칙들 간에 서열을 두는 것이 필요한가?
 ⑤ D: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이 없어야 정의로운 사회인가?

● 2015학년도 3월(고3)

10. 갑, 을이 공통으로 지지할 수 있는 견해를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 인간이 진정으로 영리하다면 자원으로서의 자연을 가능한 장기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자연을 파괴하기보다는 환경을 보호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을: 한 세대가 자기 세대만을 위하여 이기적 욕망을 무분별하게 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미래 세대에 대해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은 미래 세대의 생존 근거인 환경을 보호하려고 할 것입니다.

— < 보 기 > —

- ㄱ. 인간에게는 자연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
 ㄴ. 환경 보존을 위해 인류 차원의 협력이 필요하다.
 ㄷ. 자연의 모든 존재는 내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ㄹ. 인간을 위한 자연보호는 환경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1.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우리가 따라야 할 정언 명령은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 준칙이 보편적 법칙이 될 것을, 그 준칙을 통해 내가 동시에 의욕할 수 있는, 오직 그런 준칙에 따라서만 행위하라.”

을: 우리는 최선의 결과를 가져다 줄 행위보다 최선의 결과를 가져다 줄 규칙을 찾아야 한다. 효용의 원리를 적용하여 대안이 되는 규칙들 중에 최대의 기대 효용을 갖는 규칙을 찾고 그것에 따라 행위해야 한다.

- ① 갑은 개인의 준칙은 보편적 도덕 법칙이 될 수 없다고 본다.
 ② 갑은 자연적 경향성이 동기가 되는 행위를 도덕적이라고 본다.
 ③ 을은 최대 행복을 가져오는 규칙을 행위의 기준으로 삼는다.
 ④ 을은 행위의 결과와 무관한 보편적인 도덕 규칙을 강조한다.
 ⑤ 갑, 을은 행위가 아니라 행위자의 성품에 비추어 도덕성을 평가해야 한다고 본다.

12. 갑, 을의 입장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지적 창작물은 어느 누구의 소유물이 될 수 없다. 정보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끊임없이 부가되어 발전하는 것이다. 인류의 공동 자산인 정보는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을: 지식 생산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통해 창작 의욕을 높일 필요가 있다. 저작자는 지식 재산권을 소유하면서도,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하기를 원하는 창작물에 대하여 저작자 표시 등의 조건 하에 누구나 활용하게 할 수 있다.

— < 보 기 > —

- ㄱ. 갑: 정보를 공유할수록 정보의 질이 하락하는 것은 아니다.
 ㄴ. 을: 모든 정보는 공공재이며 대가 없이 공유되어야 한다.
 ㄷ. 을: 정보 창작자의 지식 재산권을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
 ㄹ. 갑, 을: 저작자는 지적 창작물에 대한 소유권을 지닐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3.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갑: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 먼저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의 유일한 책무는 나의 양심에 비추어 언제나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행하는 것이다.

을: 시민 불복종은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시민 불복종은 정치적으로 양심적인 행위이고, 공중의 정의감에 호소하려고 의도된 것이다.

- ① 갑: 법률의 헌법 위배 여부 판단이 불복종의 최종 목적이다.
 ② 갑: 개인은 양심을 지키기 위해 국가 권력에 불복종할 수 있다.
 ③ 을: 시민 불복종은 정치 체제의 변혁을 의도하지 않는다.
 ④ 을: 부정한 법에 대해 불복종할 때에도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
 ⑤ 갑, 을: 시민 불복종은 불의를 교정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14. ㉠에 들어갈 적절한 내용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고대의 어느 사상가는 “정의는 일종의 비례이며, 비례는 비율의 동등성이다. 사람들이 나누어야 하는 몫은 그들의 관계에 비례할 때 정의롭다.”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의하면 A와 B가 맺는 관계가 C와 D가 맺는 관계와 같다고 할 때, 이를 치환하면 A와 C가 맺는 관계는 B와 D가 맺는 관계와 같다. 그래서 A와 C의 합과 B와 D의 합은 그 관계가 같다. 나는 분배적 정의에 관한 이 사상가의 입장을 지지한다. 그런데 재화를 나눔에 있어 어떤 사람들은 응분의 몫보다 더 많이 취하고 어떤 사람들은 더 적게 취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는 ㉠ 옳지 않다.

— < 보 기 > —

- ㄱ. 기하학적 비례에 따라 몫을 분배하지 않으므로
 ㄴ. 사람들에게 재화를 동일하게 분배하지 않으므로
 ㄷ. 산술적 비례에 따라 모두가 중간의 몫을 갖지 못하므로
 ㄹ. 가치에 비례하는 몫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발생하므로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15. 갑, 을, 병 사상가들 모두가 질문에 바르게 대답한 것은? [3점]

갑: 어떤 행위는 사회의 행복을 저해하는 경향에 비례하여 형벌에 대한 요구를 창출할 것이다.

을: 누군가 타인을 살해하면 그것은 자신을 살해하는 것이다. 보복법만이 형벌의 질과 양을 명확히 제시할 수 있다.

병: 형벌은 인간의 정신에 가장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인상을 주면서 수형자에게는 가장 작은 고통을 주어야 한다.

	질문	대답		
		갑	을	병
①	형벌은 사회적 선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인가?	예	아니요	예
②	형벌의 방법은 효용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는가?	예	아니요	아니요
③	형벌은 범죄자에게 고통을 유발하는 악인가?	아니요	예	예
④	범죄자에 대한 형벌은 법률을 통해서 집행되어야 하는가?	아니요	예	아니요
⑤	형벌의 크기는 범죄로 인해 발생하는 해악에 비례해야 하는가?	아니요	예	아니요

REAL ORIGINAL

수능기출 학력평가 모의고사

고3 생활과 윤리

정답과 해설

Contents

차례

03월	01회	2020	학년도	3월	전국연합 학력평가	002쪽
	02회	2019	학년도	3월	전국연합 학력평가	005쪽
	03회	2018	학년도	3월	전국연합 학력평가	008쪽
	04회	2017	학년도	3월	전국연합 학력평가	011쪽
	05회	2016	학년도	3월	전국연합 학력평가	014쪽
04월	06회	2020	학년도	4월	전국연합 학력평가	018쪽
	07회	2019	학년도	4월	전국연합 학력평가	021쪽
	08회	2018	학년도	4월	전국연합 학력평가	024쪽
	09회	2017	학년도	4월	전국연합 학력평가	027쪽
	10회	2016	학년도	4월	전국연합 학력평가	031쪽
06월	11회	2021	학년도	6월	모의평가	034쪽
	12회	2020	학년도	6월	모의평가	038쪽
	13회	2019	학년도	6월	모의평가	041쪽
	14회	2018	학년도	6월	모의평가	045쪽
	15회	2017	학년도	6월	모의평가	048쪽
07월	16회	2020	학년도	7월	전국연합 학력평가	052쪽
	17회	2019	학년도	7월	전국연합 학력평가	055쪽
	18회	2018	학년도	7월	전국연합 학력평가	058쪽
	19회	2017	학년도	7월	전국연합 학력평가	062쪽
	20회	2016	학년도	7월	전국연합 학력평가	065쪽
09월	21회	2021	학년도	9월	모의평가	068쪽
	22회	2020	학년도	9월	모의평가	072쪽
	23회	2019	학년도	9월	모의평가	075쪽
	24회	2018	학년도	9월	모의평가	079쪽
	25회	2017	학년도	9월	모의평가	082쪽
10월	26회	2020	학년도	10월	전국연합 학력평가	086쪽
	27회	2019	학년도	10월	전국연합 학력평가	089쪽
	28회	2018	학년도	10월	전국연합 학력평가	092쪽
	29회	2017	학년도	10월	전국연합 학력평가	095쪽
	30회	2016	학년도	10월	전국연합 학력평가	099쪽
수능	31회	2021	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02쪽
	32회	2020	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06쪽
	33회	2019	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09쪽
	34회	2018	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13쪽
	35회	2017	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16쪽

[회] 리얼 오리지널 모의고사 답안지

④ 교시 탐구 영역

결시자 확인 (수험생은 표기하지 말것.)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여 수험번호란과 옆란을 표기	

※ 문제지 표지에 안내된 필적 확인 문구를 아래 '필적 확인란'에 정자로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필적 확인란	
-----------	--

성명		수험번호									
1	0	0	0			0	0	0	0		
2	1	1	1			1	1	1	1		
3	2	2	2			2	2	2	2		
4	3	3	3			3	3	3	3		
5	4	4	4			4	4		4		
6	5	5	5			5	5		5		
7	6	6	6			6	6		6		
8	7	7	7			7	7		7		
9	8	8	8			8	8		8		
0	9	9	9			9	9		9		

※수험표에 부착된 스티커의 선택과목 순서대로 답란에 표기

감독관 확 인 (수행은 표기 하지 않음)	서 명 (또는) 날 인	본인 여부, 수험번호 및 문형의 표기가 정확한지 확인, 옆란에 서명 또는 날인
---	-----------------------------	--

※ 답안지 작성(표기)은 반드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만을 사용하고, 연필 또는 샤프 등의 필기구를 절대 사용하지 마십시오.

탐 구 (제 1 선 택)	탐구(제 1 선택)					
	문번	답	란			
	1	1	2	3	4	5
	2	1	2	3	4	5
	3	1	2	3	4	5
	4	1	2	3	4	5
	5	1	2	3	4	5
	6	1	2	3	4	5
	7	1	2	3	4	5
	8	1	2	3	4	5
	9	1	2	3	4	5
	10	1	2	3	4	5
	11	1	2	3	4	5
	12	1	2	3	4	5
	13	1	2	3	4	5
	14	1	2	3	4	5
	15	1	2	3	4	5
	16	1	2	3	4	5
	17	1	2	3	4	5
	18	1	2	3	4	5
	19	1	2	3	4	5
	20	1	2	3	4	5

※ 탐구 영역 시간별(30분)
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되어 모든 시험이
무효 처리 됩니다.

※ 탐구 영역 시간별(30분)
로 자신이 선택한 과목
이 아닌 과목의 답안을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행
위 및 각 시간별 종료령
후 답안 작성행위 등은
모두 부정행위에 해당되
어 모든 시험이 무효 처리
됩니다.

※ 탐구 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수에 관계없이 제1선택
답란부터 수험표에 표기된
순서대로 답안지에 표기
하여야 합니다.

※ 탐구 영역은 문형(출수형 / 짝수형) 구분 없이, 단일 문형입니다.

	탐구(제 2 선택)				
	문번	답	란		
탐 구 (제 2 선택)	1	①	②	③	④ ⑤
	2	①	②	③	④ ⑤
	3	①	②	③	④ ⑤
	4	①	②	③	④ ⑤
	5	①	②	③	④ ⑤
	6	①	②	③	④ ⑤
	7	①	②	③	④ ⑤
	8	①	②	③	④ ⑤
	9	①	②	③	④ ⑤
	10	①	②	③	④ ⑤
	11	①	②	③	④ ⑤
	12	①	②	③	④ ⑤
	13	①	②	③	④ ⑤
	14	①	②	③	④ ⑤
	15	①	②	③	④ ⑤
	16	①	②	③	④ ⑤
	17	①	②	③	④ ⑤
	18	①	②	③	④ ⑤
	19	①	②	③	④ ⑤
	20	①	②	③	④ ⑤

리얼 오리지널

[회] 리얼 오리지널 모의고사 답안지

④ 교시 탐구 영역

결시자 확인 (수험생은 표기하지 말것.)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여 수험번호란과 옆란을 표기	

※ 문제지 표지에 안내된 필적 확인 문구를 아래 '필적 확인란'에 정자로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필적 확인란	

성명		수험번호									
1	0	0	0		0	0	0		0	0	0
2	1	1	1		1	1	1		1	1	1
3	2	2	2		2	2	2		2	2	2
4	3	3	3		3	3	3		3	3	3
5	4	4	4		4	4	4		4	4	4
6	5	5	5		5	5	5		5	5	5
7	6	6	6		6	6	6		6	6	6
8	7	7	7		7	7	7		7	7	7
9	8	8	8		8	8	8		8	8	8
10	9	9	9		9	9	9		9	9	9

※수험표에 부착된 스티커의 선택과목 순서대로 답란에 표기

감독관 확 인 (수형상은 표기 하지 않것)	(서 명 또는 날 인)	본인 여부, 수험번호 및 문형의 표기가 정확한지 확인, 옆란에 서명 또는 날인
--	-------------------------------	--

※ 답안지 작성(표기)은 반드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만을 사용하고, 연필 또는 샤프 등의 필기구를 절대 사용하지 마십시오.

탐 구 제 1 선 택	탐구(제 1 선택)			
	문번	답	란	
	1	① ② ③ ④ ⑤		
	2	① ② ③ ④ ⑤		
	3	① ② ③ ④ ⑤		
	4	① ② ③ ④ ⑤		
	5	① ② ③ ④ ⑤		
	6	① ② ③ ④ ⑤		
	7	① ② ③ ④ ⑤		
	8	① ② ③ ④ ⑤		
	9	① ② ③ ④ ⑤		
	10	① ② ③ ④ ⑤		
	11	① ② ③ ④ ⑤		
	12	① ② ③ ④ ⑤		
	13	① ② ③ ④ ⑤		
	14	① ② ③ ④ ⑤		
	15	① ② ③ ④ ⑤		
	16	① ② ③ ④ ⑤		
	17	① ② ③ ④ ⑤		
	18	① ② ③ ④ ⑤		
	19	① ② ③ ④ ⑤		
	20	① ② ③ ④ ⑤		

※ 탐구 영역 시간별(30분)
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되어 모든 시험이
무효 처리 됩니다.

※ 탐구 영역 시간별(30분)
로 자신이 선택한 과목
이 아닌 과목의 답안을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행
위 및 각 시간별 종료령
후 답안 작성행위 등은
모두 부정행위에 해당되
어 모든 시험이 무효 처리
됩니다.

※ 탐구 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수에 관계없이 제1선택 답란부터 수험표에 표기된 순서대로 답안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 탐구 영역은 문형(출수형 / 짝수형) 구분 없이, 단일 문형입니다.

	탐구(제 2 선택)					
	문번	답	란			
탐 구 (제 2 선 택)	1	①	②	③	④	⑤
	2	①	②	③	④	⑤
	3	①	②	③	④	⑤
	4	①	②	③	④	⑤
	5	①	②	③	④	⑤
	6	①	②	③	④	⑤
	7	①	②	③	④	⑤
	8	①	②	③	④	⑤
	9	①	②	③	④	⑤
	10	①	②	③	④	⑤
	11	①	②	③	④	⑤
	12	①	②	③	④	⑤
	13	①	②	③	④	⑤
	14	①	②	③	④	⑤
	15	①	②	③	④	⑤
	16	①	②	③	④	⑤
	17	①	②	③	④	⑤
	18	①	②	③	④	⑤
	19	①	②	③	④	⑤
	20	①	②	③	④	⑤

리얼 오리지널

01회

● 고3 생활과 윤리 ●

2020학년도 3월

01 ③

02 ④

03 ③

04 ③

05 ⑤

06 ②

07 ⑤

08 ②

09 ②

10 ④

11 ⑤

12 ①

13 ④

14 ①

15 ①

16 ⑤

17 ②

18 ④

19 ①

20 ④

채점결과

• 실제 걸린 시간 :

분

초

• 맞은 문항수 :

개

개

• 틀린 문항수 :

개

개

• 헛걸린 문항 :

개

개

01

규범 윤리학과 메타 윤리학

정답 ③

답지 선택률

① 14% ② 7% ③ 67% ④ 6% ⑤ 6%

| 문제 보기 |

①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윤리학은 선과 악이 무엇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도덕적으로 바람직한가에 대한 탐구를 바탕으로, 도덕 원리를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윤리학이 '선'과 '악'이라는 개념의 의미를 분석하고, 도덕적 논증의 타당성을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는 이러한 윤리학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㊀ ㊁ ㊂ ㊃ ㊄ ㊅ ㊆ ㊇ ㊈ 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㊱ ㊲ ㊳ ㊴ ㊵ ㊶ ㊷ ㊸ ㊹ ㊺ ㊻ ㊼ ㊽ ㊾ ㊿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㐀 㐁 㐂 㐃 㐄 㐅 㐆 㐇 㐈 㐉 㐊 㐋 㐌 㐍 㐎 㐏 㐐 㐑 㐒 㐓 㐔 㐕 㐖 㐗 㐘 㐙 㐚 㐛 㐜 㐝 㐞 㐟 㐠 㐡 㐢 㐣 㐤 㐥 㐦 㐧 㐨 㐩 㐪 㐫 㐬 㐭 㐮 㐯 㐰 㐱 㐲 㐳 㐴 㐵 㐶 㐷 㐸 㐹 㐺 㐻 㐼 㐽 㐾 㐿 㑀 㑁 㑂 㑃 㑄 㑅 㑆 㑇 㑈 㑉 㑊 㑋 㑌 㑍 㑎 㑏 㑐 㑑 㑒 㑓 㑔 㑕 㑖 㑗 㑘 㑙 㑚 㑛 㑜 㑝 㑞 㑟 㑠 㑡 㑢 㑣 㑤 㑥 㑦 㑧 㑨 㑩 㑪 㑫 㑬 㑭 㑮 㑯 㑰 㑱 㑲 㑳 㑴 㑵 㑶 㑷 㑸 㑹 㑺 㑻 㑼 㑽 㑾 㑿 㒀 㒁 㒂 㒃 㒄 㒅 㒆 㒇 㒈 㒉 㒊 㒋 㒌 㒍 㒎 㒏 㒐 㒑 㒒 㒓 㒔 㒕 㒖 㒗 㒘 㒙 㒚 㒛 㒜 㒝 㒞 㒟 㒠 㒡 㒢 㒣 㒤 㒥 㒦 㒧 㒨 㒩 㒪 㒫 㒬 㒭 㒮 㒯 㒰 㒱 㒲 㒳 㒴 㒵 㒶 㒷 㒸 㒹 㒺 㒻 㒼 㒽 㒾 㒿 㓀 㓁 㓂 㓃 㓄 㓅 㓆 㓇 㓈 㓉 㓊 㓋 㓌 㓍 㓎 㓏 㓐 㓑 㓒 㓓 㓔 㓕 㓖 㓗 㓘 㓙 㓚 㓛 㓜 㓝 㓞 㓟 㓠 㓡 㓢 㓣 㓤 㓥 㓦 㓧 㓨 㓩 㓪 㓫 㓬 㓭 㓮 㓯 㓰 㓱 㓲 㓳 㓴 㓵 㓶 㓷 㓸 㓹 㓺 㓻 㓼 㓽 㓾 㓿 㔀 㔁 㔂 㔃 㔄 㔅 㔆 㔇 㔈 㔉 㔊 㔋 㔌 㔍 㔎 㔏 㔐 㔑 㔒 㔓 㔔 㔕 㔖 㔗 㔘 㔙 㔚 㔛 㔜 㔝 㔞 㔟 㔠 㔡 㔢 㔣 㔤 㔥 㔦 㔧 㔨 㔩 㔪 㔫 㔬 㔭 㔮 㔯 㔰 㔱 㔲 㔳 㔴 㔵 㔶 㔷 㔸 㔹 㔺 㔻 㔼 㔽 㔾 㔿 㕀 㕁 㕂 㕃 㕄 㕅 㕆 㕇 㕈 㕉 㕊 㕋 㕌 㕍 㕎 㕏 㕐 㕑 㕒 㕓 㕔 㕕 㕖 㕗 㕘 㕙 㕚 㕛 㕜 㕝 㕞 㕟 㕠 㕡 㕢 㕣 㕤 㕥 㕦 㕧 㕨 㕩 㕪 㕫 㕬 㕭 㕮 㕯 㕰 㕱 㕲 㕳 㕴 㕵 㕶 㕷 㕸 㕹 㕺 㕻 㕼 㕽 㕾 㕿 㖀 㖁 㖂 㖃 㖄 㖅 㖆 㖇 㖈 㖉 㖊 㖋 㖌 㖍 㖎 㖏 㖐 㖑 㖒 㖓 㖔 㖕 㖖 㖗 㖘 㖙 㖚 㖛 㖜 㖝 㖞 㖟 㖠 㖡 㖢 㖣 㖤 㖥 㖦 㖧 㖨 㖩 㖪 㖫 㖬 㖭 㖮 㖯 㖰 㖱 㖲 㖳 㖴 㖵 㖶 㖷 㖸 㖹 㖺 㖻 㖼 㖽 㖾 㖿 㗀 㗁 㗂 㗃 㗄 㗅 㗆 㗇 㗈 㗉 㗊 㗋 㗌 㗍 㗎 㗏 㗐 㗑 㗒 㗓 㗔 㗕 㗖 㗗 㗘 㗙 㗚 㗛 㗜 㗝 㗞 㗟 㗠 㗡 㗢 㗣 㗤 㗥 㗦 㗧 㗨 㗩 㗪 㗫 㗬 㗭 㗮 㗯 㗰 㗱 㗲 㗳 㗴 㗵 㗶 㗷 㗸 㗹 㗺 㗻 㗼 㗽 㗾 㗿 㘀 㘁 㘂 㘃 㘄 㘅 㘆 㘇 㘈 㘉 㘊 㘋 㘌 㘍 㘎 㘏 㘐 㘑 㘒 㘓 㘔 㘕 㘖 㘗 㘘 㘙 㘚 㘛 㘜 㘝 㘞 㘟 㘠 㘡 㘢 㘣 㘤 㘥 㘦 㘧 㘨 㘩 㘪 㘫 㘬 㘭 㘮 㘯 㘰 㘱 㘲 㘳 㘴 㘵 㘶 㘷 㘸 㘹 㘺 㘻 㘼 㘽 㘾 㘿 㙀 㙁 㙂 㙃 㙄 㙅 㙆 㙇 㙈 㙉 㙊 㙋 㙌 㙍 㙎 㙏 㙐 㙑 㙒 㙓 㙔 㙕 㙖 㙗 㙘 㙙 㙚 㙛 㙜 㙝 㙞 㙟 㙠 㙡 㙢 㙣 㙤 㙥 㙦 㙧 㙨 㙩 㙪 㙫 㙬 㙭 㙮 㙯 㙰 㙱 㙲 㙳 㙴 㙵 㙶 㙷 㙸 㙹 㙺 㙻 㙼 㙽 㙾 㙿 㚀 㚁 㚂 㚃 㚄 㚅 㚆 㚇 㚈 㚉 㚊 㚋 㚌 㚍 㚎 㚏 㚐 㚑 㚒 㚓 㚔 㚕 㚖 㚗 㚘 㚙 㚚 㚛 㚜 㚝 㚞 㚟 㚠 㚡 㚢 㚣 㚤 㚥 㚦 㚧 㚨 㚩 㚪 㚫 㚬 㚭 㚮 㚯 㚰 㚱 㚲 㚳 㚴 㚵 㚶 㚷 㚸 㚹 㚺 㚻 㚼 㚽 㚾 㚿 㜀 㜁 㜂 㜃 㜄 㜅 㜆 㜇 㜈 㜉 㜊 㜋 㜌 㜍 㜎 㜏 㜐 㜑 㜒 㜓 㜔 㜕 㜖 㜗 㜘 㜙 㜚 㜛 㜜 㜝 㜞 㜟 㜠 㜡 㜢 㜣 㜤 㜥 㜦 㜧 㜨 㜩 㜪 㜫 㜬 㜭 㜮 㜯 㜰 㜱 㜲 㜳 㜴 㜵 㜶 㜷 㜸 㜹 㜺 㜻 㜼 㜽 㜾 㜿 㝀 㝁 㝂 㝃 㝄 㝅 㝆 㝇 㝈 㝉 㝊 㝋 㝌 㝍 㝎 㝏 㝐 㝑 㝒 㝓 㝔 㝕 㝖 㝗 㝘 㝙 㝚 㝛 㝜 㝝 㝞 㝟 㝠 㝡 㝢 㝣 㝤 㝥 㝦 㝧 㝨 㝩 㝪 㝫 㝬 㝭 㝮 㝯 㝰 㝱 㝲 㝳 㝴 㝵 㝶 㝷 㝸 㝹 㝺 㝻 㝼 㝽 㝾 㝿 㞀 㞁 㞂 㞃 㞄 㞅 㞆 㞇 㞈 㞉 㞊 㞋 㞌 㞍 㞎 㞏 㞐 㞑 㞒 㞓 㞔 㞕 㞖 㞗 㞘 㞙 㞚 㞛 㞜 㞝 㞞 㞟 㞠 㞡 㞢 㞣 㞤 㞥 㞦 㞧 㞨 㞩 㞪 㞫 㞬 㞭 㞮 㞯 㞰 㞱 㞲 㞳 㞴 㞵 㞶 㞷 㞸 㞹 㞺 㞻 㞼 㞽 㞾 㞿 㟀 㟁 㟂 㟃 㟄 㟅 㟆 㟇 㟈 㟉 㟊 㟋 㟌 㟍 㟎 㟏 㟐 㟑 㟒 㟓 㟔 㟕 㟖 㟗 㟘 㟙 㟚 㟛 㟜 㟝 㟞 㟟 㟠 㟡 㟢 㟣 㟤 㟥 㟦 㟧 㟨 㟩 㟪 㟫 㟬 㟭 㟮 㟯 㟰 㟱 㟲 㟳 㟴 㟵 㟶 㟷 㟸 㟹 㟺 㟻 㟼 㟽 㟾 㟿 㠀 㠁 㠂 㠃 㠄 㠅 㠆 㠇 㠈 㠉 㠊 㠋 㠌 㠍 㠎 㠏 㠐 㠑 㠒 㠓 㠔 㠕 㠖 㠗 㠘 㠙 㠚 㠛 㠜 㠝 㠞 㠟 㠠 㠡 㠢 㠣 㠤 㠥 㠦 㠧 㠨 㠩 㠪 㠫 㠬 㠭 㠮 㠯 㠰 㠱 㠲 㠳 㠴 㠵 㠶 㠷 㠸 㠹 㠺 㠻 㠼 㠽 㠾 㠿 㡀 㡁 㡂 㡃 㡄 㡅 㡆 㡇 㡈 㡉 㡊 㡋 㡌 㡍 㡎 㡏 㡐 㡑 㡒 㡓 㡔 㡕 㡖 㡗 㡘 㡙 㡚 㡛 㡜 㡝 㡞 㡟 㡠 㡡 㡢 㡣 㡤 㡥 㡦 㡧 㡨 㡩 㡪 㡫 㡬 㡭 㡮 㡯 㡰 㡱 㡲 㡳 㡴 㡵 㡶 㡷 㡸 㡹 㡺 㡻 㡼 㡽 㡾 㡿 㢀 㢁 㢂 㢃 㢄 㢅 㢆 㢇 㢈 㢉 㢊 㢋 㢌 㢍 㢎 㢏 㢐 㢑 㢒 㢓 㢔 㢕 㢖 㢗 㢘 㢙 㢚 㢛 㢜 㢝 㢞 㢟 㢠 㢡 㢢 㢣 㢤 㢥 㢦 㢧 㢨 㢩 㢪 㢫 㢬 㢭 㢮 㢯 㢰 㢱 㢲 㢳 㢴 㢵 㢶 㢷 㢸 㢹 㢺 㢻 㢼 㢽 㢾 㢿 㣀 㣁 㣂 㣃 㣄 㣅 㣆 㣇 㣈 㣉 㣊 㣋 㣌 㣍 㣎 㣏 㣐 㣑 㣒 㣓 㣔 㣕 㣖 㣗 㣘 㣙 㣚 㣛 㣜 㣝 㣞 㣟 㣠 㣡 㣢 㣣 㣤 㣥 㣦 㣧 㣨 㣩 㣪 㣫 㣬 㣭 㣮 㣯 㣰 㣱 㣲 㣳 㣴 㣵 㣶 㣷 㣸 㣹 㣺 㣻 㣼 㣽 㣾 㣿 㤀 㤁 㤂 㤃 㤄 㤅 㤆 㤇 㤈 㤉 㤊 㤋 㤌 㤍 㤎 㤏 㤐 㤑 㤒 㤓 㤔 㤕 㤖 㤗 㤘 㤙 㤚 㤛 㤜 㤝 㤞 㤟 㤠 㤡 㤢 㤣 㤤 㤥 㤦 㤧 㤨 㤩 㤪 㤫 㤬 㤭 㤮 㤯 㤰 㤱 㤲 㤳 㤴 㤵 㤶 㤷 㤸 㤹 㤺 㤻 㤼 㤽 㤾 㤿 㥀 㥁 㥂 㥃 㥄 㥅 㥆 㥇 㥈 㥉 㥊 㥋 㥌 㥍 㥎 㥏 㥐 㥑 㥒 㥓 㥔 㥕 㥖 㥗 㥘 㥙 㥚 㥛 㥜 㥝 㥞 㥟 㥠 㥡 㥢 㥣 㥤 㥥 㥦 㥧 㥨 㥩 㥪 㥫 㥬 㥭 㥮 㥯 㥰 㥱 㥲 㥳 㥴 㥵 㥶 㥷 㥸 㥹 㥺 㥻 㥼 㥽 㥾 㥿 㦀 㦁 㦂 㦃 㦄 㦅 㦆 㦇 㦈 㦉 㦊 㦋 㦌 㦍 㦎 㦏 㦐 㦑 㦒 㦓 㦔 㦕 㦖 㦗 㦘 㦙 㦚 㦛 㦜 㦝 㦞 㦟 㦠 㦡 㦢 㦣 㦤 㦥 㦦 㦧 㦨 㦩 㦪 㦫 㦬 㦭 㦮 㦯 㦰 㦱 㦲 㦳 㦴 㦵 㦶 㦷 㦸 㦹 㦺 㦻 㦼 㦽 㦾 㦿 㧀 㧁 㧂 㧃 㧄 㧅 㧆 㧇 㧈 㧉 㧊 㧋 㧌 㧍 㧎 㧏 㧐 㧑 㧒 㧓 㧔 㧕 㧖 㧗 㧘 㧙 㧚 㧛 㧜 㧝 㧞 㧟 㧠 㧡 㧢 㧣 㧤 㧥 㧦 㧧 㧨 㧩 㧪 㧫 㧬 㧭 㧮 㧯 㧰 㧱 㧲 㧳 㧴 㧵 㧶 㧷 㧸 㧹 㧺 㧻 㧼 㧽 㧾 㧿 㨀 㨁 㨂 㨃 㨄 㨅 㨆 㨇 㨈 㨉 㨊 㨋 㨌 㨍 㨎 㨏 㨐 㨑 㨒 㨓 㨔 㨕 㨖 㨗 㨘 㨙 㨚 㨛 㨜 㨝 㨞 㨟 㨠 㨡 㨢 㨣 㨤 㨥 㨦 㨧 㨨 㨩 㨪 㨫 㨬 㨭 㨮 㨯 㨰 㨱 㨲 㨳 㨴 㨵 㨶 㨷 㨸 㨹 㨺 㨻 㨼 㨽 㨾 㨿 㩀 㩁 㩂 㩃 㩄 㩅 㩆 㩇 㩈 㩉 㩊 㩋 㩌 㩍 㩎 㩏 㩐 㩑 㩒 㩓 㩔 㩕 㩖 㩗 㩘 㩙 㩚 㩛 㩜 㩝 㩞 㩟 㩠 㩡 㩢 㩣 㩤 㩥 㩦 㩧 㩨 㩩 㩪 㩫 㩬 㩭 㩮 㩯 㩰 㩱 㩲 㩳 㩴 㩵 㩶 㩷 㩸 㩹 㩺 㩻 㩼 㩽 㩾 㩿 㪀 㪁 㪂 㪃 㪄 㪅 㪆 㪇 㪈 㪉 㪊 㪋 㪌 㪍 㪎 㪏 㪐 㪑 㪒 㪓 㪔 㪕 㪖 㪗 㪘 㪙 㪚 㪛 㪜 㪝 㪞 㪟 㪠 㪡 㪢 㪣 㪤 㪥 㪦 㪧 㪨 㪩 㪪 㪫 㪬 㪭 㪮 㪯 㪰 㪱 㪲 㪳 㪴 㪵 㪶 㪷 㪸 㪹 㪺 㪻 㪼 㪽 㪾 㪿 㫀 㫁 㫂 㫃 㫄 㫅 㫆 㫇 㫈 㫉 㫊 㫋 㫌 㫍 㫎 㫏 㫐 㫑 㫒 㫓 㫔 㫕 㫖 㫗 㫘 㫙 㫚 㫛 㫜 㫝 㫞 㫟 㫠 㫡 㫢 㫣 㫤 㫥 㫦 㫧 㫨 㫩 㫪 㫫 㫬 㫭 㫮 㫯 㫰 㫱 㫲 㫳 㫴 㫵 㫶 㫷 㫸 㫹 㫺 㫻 㫼 㫽 㫾 㫿 㬀 㬁 㬂 㬃 㬄 㬅 㬆 㬇 㬈 㬉 㬊 㬋 㬌 㬍 㬎 㬏 㬐 㬑 㬒 㬓 㬔 㬕 㬖 㬗 㬘 㬙 㬚 㬛 㬜 㬝 㬞 㬟 㬠 㬡 㬢 㬣 㬤 㬥 㬦 㬧 㬨 㬩 㬪 㬫 㬬 㬭 㬮 㬯 㬰 㬱 㬲 㬳 㬴 㬵 㬶 㬷 㬸 㬹 㬺 㬻 㬼 㬽 㬾 㬿 㭀 㭁 㭂 㭃 㭄 㭅 㭆 㭇 㭈 㭉 㭊 㭋 㭌 㭍 㭎 㭏 㭐 㭑 㭒 㭓 㭔 㭕 㭖 㭗 㭘 㭙 㭚 㭛 㭜 㭝 㭞 㭟 㭠 㭡 㭢 㭣 㭤 㭥 㭦 㭧 㭨 㭩 㭪 㭫 㭬 㭭 㭮 㭯 㭰 㭱 㭲 㭳 㭴 㭵 㭶 㭷 㭸 㭹 㭺 㭻 㭼 㭽 㭾 㭿 㮀 㮁 㮂 㮃 㮄 㮅 㮆 㮇 㮈 㮉 㮊 㮋 㮌 㮍 㮎 㮏 㮐 㮑 㮒 㮓 㮔 㮕 㮖 㮗 㮘 㮙 㮚 㮛 㮜 㮝 㮞 㮟 㮠 㮡 㮢 㮣 㮤 㮥 㮦 㮧 㮨 㮩 㮪 㮫 㮬 㮭 㮮 㮯 㮰 㮱 㮲 㮳 㮴 㮵 㮶 㮷 㮸 㮹 㮺 㮻 㮼 㮽 㮾 㮿 㯀 㯁 㯂 㯃 㯄 㯅 㯆 㯇 㯈 㯉 㯊 㯋 㯌 㯍 㯎 㯏 㯐 㯑 㯒 㯓 㯔 㯕 㯖 㯗 㯘 㯙 㯚 㯛 㯜 㯝 㯞 㯟 㯠 㯡 㯢 㯣 㯤 㯥 㯦 㯧 㯨 㯩 㯪 㯫 㯬 㯭 㯮 㯯 㯰 㯱 㯲 㯳 㯴 㯵 㯶 㯷 㯸 㯹 㯺 㯻 㯼 㯽 㯾 㯿 㰀 㰁 㰂 㰃 㰄 㰅 㰆 㰇 㰈 㰉 㰊 㰋 㰌 㰍 㰎 㰏 㰐 㰑 㰒 㰓 㰔 㰕 㰖 㰗 㰘 㰙 㰚 㰛 㰜 㰝 㰞 㰟 㰠 㰡 㰢 㰣 㰤 㰥 㰦 㰧 㰨 㰩 㰪 㰫 㰬 㰭 㰮 㰯 㰰 㰱 㰲 㰳 㰴 㰵 㰶 㰷 㰸 㰹 㰺 㰻 㰼 㰽 㰾 㰿 㱀 㱁 㱂 㱃 㱄 㱅 㱆 㱇 㱈 㱉 㱊 㱋 㱌 㱍 㱎 㱏 㱐 㱑 㱒 㱓 㱔 㱕 㱖 㱗 㱘 㱙 㱚 㱛 㱜 㱝 㱞 㱟 㱠 㱡 㱢 㱣 㱤 㱥 㱦 㱧 㱨 㱩 㱪 㱫 㱬 㱭 㱮 㱯 㱰 㱱 㱲 㱳 㱴 㱵 㱶 㱷 㱸 㱹 㱺 㱻 㱼 㱽 㱾 㱿 㲀 㲁 㲂 㲃 㲄 㲅 㲆 㲇 㲈 㲉 㲊 㲋 㲌 㲍 㲎 㲏 㲐 㲑 㲒 㲓 㲔 㲕 㲖 㲗 㲘 㲙 㲚 㲛 㲜 㲝 㲞 㲟 㲠 㲡 㲢 㲣 㲤 㲥 㲦 㲧 㲨 㲩 㲪 㲫 㲬 㲭 㲮 㲯 㲰 㲱 㲲 㲳 㲴 㲵 㲶 㲷 㲸 㲹 㲺 㲻 㲼 㲽 㲾 㲿 㳀 㳁 㳂 㳃 㳄 㳅 㳆 㳇 㳈 㳉 㳊 㳋 㳌 㳍 㳎 㳏 㳐 㳑 㳒 㳓 㳔 㳕 㳖 㳗 㳘 㳙 㳚 㳛 㳜 㳝 㳞 㳟 㳠 㳡 㳢 㳣 㳤 㳥 㳦 㳧 㳨 㳩 㳪 㳫 㳬 㳭 㳮 㳯 㳰 㳱 㳲 㳳 㳴 㳵 㳶 㳷 㳸 㳹 㳺 㳻 㳼 㳽 㳾 㳿 㴀 㴁 㴂 㴃 㴄 㴅 㴆 㴇 㴈 㴉 㴊 㴋 㴌 㴍 㴎 㴏 㴐 㴑 㴒 㴓 㴔 㴕 㴖 㴗 㴘 㴙 㴚 㴛 㴜 㴝 㴞 㴟 㴠 㴡 㴢 㴣 㴤 㴥 㴦 㴧 㴨 㴩 㴪 㴫 㴬 㴭 㴮 㴯 㴰 㴱 㴲 㴳 㴴 㴵 㴶 㴷 㴸 㴹 㴺 㴻 㴼 㴽 㴾 㴿 㵀 㵁 㵂 㵃 㵄 㵅 㵆 㵇 㵈 㵉 㵊 㵋 㵌 㵍 㵎 㵏 㵐 㵑 㵒 㵓 㵔 㵕 㵖 㵗 㵘 㵙 㵚 㵛 㵜 㵝 㵞 㵟 㵠 㵡 㵢 㵣 㵤 㵥 㵦 㵧 㵨 㵩 㵪 㵫 㵬 㵭 㵮 㵯 㵰 㵱 㵲 㵳 㵴 㵵 㵶 㵷 㵸 㵹 㵺 㵻 㵼 㵽 㵾 㵿 㶀 㶁 㶂 㶃 㶄 㶅 㶆 㶇 㶈 㶉 㶊 㶋 㶌 㶍 㶎 㶏 㶐 㶑 㶒 㶓 㶔 㶕 㶖 㶗 㶘 㶙 㶚 㶛 㶜 㶝 㶞 㶟 㶠 㶡 㶢 㶣 㶤 㶥 㶦 㶧 㶨 㶩 㶪 㶫 㶬 㶭 㶮 㶯 㶰 㶱 㶲 㶳 㶴 㶵 㶶 㶷 㶸 㶹 㶺 㶻 㶼 㶽 㶾 㶿 㷀 㷁 㷂 㷃 㷄 㷅 㷆 㷇 㷈 㷉 㷊 㷋 㷌 㷍 㷎 㷏 㷐 㷑 㷒 㷓 㷔 㷕 㷖 㷗 㷘 㷙 㷚 㷛 㷜 㷝 㷞 㷟 㷠 㷡 㷢 㷣 㷤 㷥 㷦 㷧 㷨 㷩 㷪 㷫 㷬 㷭 㷮 㷯 㷰 㷱 㷲 㷳 㷴 㷵 㷶 㷷 㷸 㷹 㷺 㷻 㷼 㷽 㷾 㷿 㸀 㸁 㸂 㸃 㸄 㸅 㸆 㸇 㸈 㸉 㸊 㸋 㸌 㸍 㸎 㸏 㸐 㸑 㸒 㸓 㸔 㸕 㸖 㸗 㸘 㸙 㸚 㸛 㸜 㸝 㸞 㸟 㸠 㸡 㸢 㸣 㸤 㸥 㸦 㸧 㸨 㸩 㸪 㸫 㸬 㸭 㸮 㸯 㸰 㸱 㸲 㸳 㸴 㸵 㸶 㸷 㸸 㸹 㸺 㸻 㸼 㸽 㸾 㸿 㹀 㹁 㹂 㹃 㹄 㹅 㹆 㹇 㹈 㹉 㹊 㹋 㹌 㹍 㹎 㹏 㹐 㹑 㹒 㹓 㹔 㹕 㹖 㹗 㹘 㹙 㹚 㹛 㹜 㹝 㹞 㹟 㹠 㹡 㹢 㹣 㹤 㹥 㹦 㹧 㹨 㹩 㹪 㹫 㹬 㹭 㹮 㹯 㹰 㹱 㹲 㹳 㹴 㹵 㹶 㹷 㹸 㹹 㹺 㹻 㹼 㹽 㹿 㺀 㺁 㺂 㺃 㺄 㺅 㺆 㺇 㺈 㺉 㺊 㺋 㺌 㺍 㺎 㺏 㺐 㺑 㺒 㺓 㺔 㺕 㺖 㺗 㺘 㺙 㺚 㺛 㺜 㺝 㺞 㺟 㺠 㺡 㺢 㺣 㺤 㺥 㺦 㺧 㺨 㺩 㺪 㺫 㺬 㺭 㺮 㺯 㺰 㺱 㺲 㺳 㺴 㺵 㺶 㺷 㺸 㺹 㺺 㺻 㺼 㺽 㺾 㺿 㻀 㻁 㻂 㻃 㻄 㻅 㻆 㻇 㻈 㻉 㻊 㻋 㻌 㻍 㻎 㻏 㻐 㻑 㻒 㻓 㻔 㻕 㻖 㻗 㻘 㻙 㻚 㻛 㻜 㻝 㻞 㻟 㻠 㻡 㻢 㻣 㻤 㻥 㻦 㻧 㻨 㻩 㻪 㻫 㻬 㻭 㻮 㻯 㻰 㻱 㻲 㻳 㻴 㻵 㻶 㻷 㻸 㻹 㻺 㻻 㻼 㻽 㻾 㻿 㼀 㼁 㼂 㼃 㼄 㼅 㼆 㼇 㼈

- ① 대화 역량은 종교 간 평화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것이다.
 ② 참된 하나의 종교를 통해서만 종교 간 평화가 보장된다.
 ③ 종교 간 평화는 여러 종교의 통합을 통해 가장 잘 실현된다.
 ④ 각자 자신의 종교적 정체성을 포기할 때 세계 평화가 실현된다.
 ⑤ 각 종교가 자신의 종교에 대해 반성적 성찰을 할 필요는 없다.

• 왜 정답일까?

제시문은 평의 주장이다.
 평은 종교 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종교 간의 대화が必要하다고 보았다.

15 예술에 대한 입장 정답 ①

답지 선택률 ① 74% ② 8% ③ 6% ④ 8% ⑤ 4%

| 문제 보기 |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미적인 것은 윤리적인 것의 상징이며, 이러한 관점에서만 미적인 것은 다른 모든 사람들의 동의를 요구한다.
 을: 예술에서 선한 의도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 형편없는 예술은 모두 선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병: 우아함과 좋은 리듬은 좋은 말씨와 좋은 성품을 담고, 추함과 나쁜 리듬은 나쁜 말씨와 나쁜 성품을 담는다.

- ① 갑: 인간의 미적 체험은 도덕성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② 을: 진정한 감성자는 아름다운 것에서 도덕적 의미를 찾는다.
 ③ 병: 미적 가치와 도덕적 가치는 서로 독립된 별개의 가치이다.
 ④ 갑, 을: 윤리적인 공감 능력은 예술 작품 창작에 필수적이다.
 ⑤ 갑, 병: 미는 순수하게 이성적인 것으로 감성과는 무관하다.

• 왜 정답일까?

갑은 칸트, 을은 와일드, 병은 플라톤이다.
 칸트는 미와 선의 형식은 유사하므로 인간의 미적 체험은 도덕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다.

16 부부 윤리에 대한 유교의 입장 정답 ⑤

답지 선택률 ① 7% ② 18% ③ 5% ④ 9% ⑤ 61%

| 문제 보기 |
 (가) 사상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공손하의 예(禮)가 없으면 힘이 들고, 신중하의 예가 없으면 두렵게 되고, 용맹하의 예가 없으면 난을 일으키고, 경직하의 예가 없으면 각박하게 된다.
 (나) 남녀의 구별이 있어야 ㉠의 의(義)가 있고, ㉡의 의가 있어야 부자의 친함이 있고, 부자의 친함이 있어야 군신의 의가 있다. 그러므로 혼례는 예의 근본이다.

- ① 서로에게 자애와 효도를 실천해야 하는 호혜적 관계이다.
 ② 삶의 동반자로서 서로 정조를 지켜야 하는 천륜 관계이다.
 ③ 가장을 중심으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수직적 관계이다.
 ④ 장유(長幼)의 사별과 친애를 근본으로 하는 상호 존중의 관계이다.
 ⑤ 서로의 역할을 구분하면서도 상호 보완하는 협력적 관계이다.

• 왜 정답일까?

(가)는 유교 사상가인 공자의 주장이고, (나)의 ㉠은 '부부'이다.
 유교에서는 부부를 각자의 역할은 다르면서도 서로 존중하고 보완하는 협력적 관계로 본다.

• 왜 오답일까?

- ② 유교에서는 부부 관계를 천륜 관계로 보지 않는다.

17 니부어의 사상적 입장 정답 ②

답지 선택률 ① 15% ② 58% ③ 10% ④ 10% ⑤ 7%

| 문제 보기 |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가 지지할 견해를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이기심을 억제해야 한다면 사회는 이기심에 대한 제도로 갈등과 폭력까지도 승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 가장 친밀한 개인들 간의 관계에서는 필요치 않은 강제적 수단이 집단 간의 조화와 정의의 확립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강제력의 요소는 윤리적으로 정당할 범주에 귀속시킬 수 있다.

< 보기 >
 ㄱ. 집단 이기주의는 집단 구성원의 이성적 판단을 방해한다.
 ㄴ. 개인의 합리성이 계고되면 집단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
 ㄷ. 집단 간의 갈등은 개인의 도덕적인 문제로 환원될 수 있다.
 ㄹ. 폭력을 수반하는 강제력도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 왜 정답일까?

제시문은 니부어의 주장이다.
 니부어는 집단의 도덕성은 개인의 도덕성보다 열등하며, 정의 실현을 위해서는 강제력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18 갈통의 사상적 입장 정답 ④

답지 선택률 ① 4% ② 5% ③ 9% ④ 75% ⑤ 7%

| 문제 보기 |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언어, 예술, 종교, 이념, 도덕, 가치 등 인간 존재의 상징적 차원에서 작동하는 문화적 폭력은 살인, 민권, 억압, 소외, 착취 등 직접적·구조적 폭력의 모든 유형을 관통하며 이들에 정당성과 합법성을 부여함으로써 폭력을 은폐한다. 따라서 진정한 평화는 직접적 폭력의 부재뿐만 아니라, 구조적 폭력과 문화적 폭력의 부재를 지향할 때에만 가능하다.

- ① 직접적 폭력과 달리 문화적 폭력은 제거할 수 없다.
 ② 의도되지 않은 폭력은 직접적인 피해를 입힐 수 없다.
 ③ 진정한 평화는 직접적 폭력의 제거로 완전히 실현된다.
 ④ 문화적 폭력은 직접적·구조적 폭력의 발현을 조장한다.
 ⑤ 직접적·구조적 문화적 폭력들은 항상 동시에 나타난다.

• 왜 정답일까?

제시문은 갈통의 주장이다.
 갈통은 문화적 폭력이 직접적·구조적 폭력에 정당성과 합법성을 부여함으로써 폭력의 발현을 조장한다고 보았다.

• 왜 오답일까?

- ② 갈통은 의도되지 않은 폭력도 직접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보았다.

19 과학자의 책임에 대한 요나스의 입장 정답 ①

답지 선택률 ① 53% ② 9% ③ 21% ④ 12% ⑤ 5%

| 문제 보기 |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주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과학 분야에서의 이론적 관심과 실천적 관심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과학자는 진리의 발견이라는 자신의 일이 바깥세계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과학자에게는 자연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가치 중립적인 엄밀성을 추구할 내적 의무가 있습니다. 동시에 과학자는 자신의 연구 결과와 인류의 미래에 끼치는 영향력과 책임에 대하여 철학적으로 숙고해야 합니다.

- ① 과학자는 연구 결과를 지적으로 검토하고 평가해야 한다.
 ② 과학자는 내적 책임뿐만 아니라 외적 책임도 지녀야 한다.
 ③ 과학자는 실험 진행의 과정에서 중립적인 관찰자이어야 한다.

- ④ 과학자는 자연을 탐구할 때 연구 윤리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⑤ 과학자는 자신의 연구가 인류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해야 한다.

• 왜 정답일까?

그림의 강연자는 요나스이다.
 요나스는 과학자가 연구 과정에 대한 내적 책임과 사회적 영향에 대한 외적 책임을 지녀야 한다고 보았다.

20 하버마스의 사상적 입장 정답 ④

답지 선택률 ① 7% ② 7% ③ 7% ④ 75% ⑤ 4%

| 문제 보기 |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어떤 준칙이 보편적 규범으로 승인되기 위해서는 담론이 필요하다. 나는 담론에 참여한 자들이 합의를 지향하며 그들의 행위 계획을 조정하는 상호 작용을 의사소통이라 부른다. 이때 도달한 합의는 타당성 주장에 대한 상호 인정에 따라 평가된다. 담론의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며, 각자의 개별 상황에 따른 타당성 주장들, 즉 진리 주장, 정당성 주장 및 진실성 주장을 제기해야 한다.

< 보기 >
 ㄱ. 담론의 모든 참여자는 서로를 동등한 인격의 소유자로 대우해야 한다.
 ㄴ. 규범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할 때는 결과에 대한 고려를 해서는 안 된다.
 ㄷ. 담론의 참여자들은 논의에서 합의된 보편적 규범의 실천을 추구해야 한다.
 ㄹ. 어떤 준칙이 보편적 규범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대화 당사자들이 동의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 왜 정답일까?

제시문은 하버마스의 주장이다.
 하버마스는 담론 윤리를 통해 논의의 참여자가 합의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을 중시하였다.

02회 2019학년도 3월

01 ⑤ 02 ⑤ 03 ① 04 ② 05 ④
 06 ③ 07 ④ 08 ③ 09 ④ 10 ①
 11 ③ 12 ② 13 ① 14 ② 15 ①
 16 ① 17 ② 18 ② 19 ④ 20 ③

채점결과
 • 실제 걸린 시간 : 분 초
 • 맞은 문항수 : 개 개
 • 틀린 문항수 : 개 개
 • 헛갈린 문항 :

01 응용 윤리학과 메타 윤리학 정답 ⑤

답지 선택률 ① 5% ② 4% ③ 5% ④ 5% ⑤ 81%

| 문제 보기 |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윤리학의 목표는 보편적 도덕 원리를 구체적인 문제 상황에 적용하여 해결 방안을 탐구하는 데 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윤리학의 목표가 도덕적 언어의 의미 분석과 도덕적 추론의 타당성 검토에 있다고 주장한다. 내가 보기에 이들은 윤리학이 ㉠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① 도덕적 진술의 의미를 명료하게 밝혀야 한다
 ② 도덕 명제에 대한 검증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③ 학문으로서 성립 가능한지의 여부를 탐구해야 한다
 ④ 도덕 현상의 객관적 기술을 핵심 과제로 삼아야 한다
 ⑤ 현실적 도덕 문제의 해결을 위한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

• 왜 정답일까?

㉠에는 응용 윤리학의 입장에서 메타 윤리학에 대해 평가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응용 윤리학은 윤리학이 현실적 도덕 문제의 해결을 위한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02 거주에 대한 볼노브의 입장 정답 ⑤

답지 선택률 ① 1% ② 2% ③ 2% ④ 3% ⑤ 92%

| 문제 보기 |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거주란 낯선 공간 안에 낯선 자로서 던져진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거주는 그 공간에 친숙해지며, 그 공간에서 삶의 확고하고 지속적인 근거를 발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은 외부 공간에 존재하는 위협을 막아 주는 집에서 안정감을 느끼면서, 이를 바탕으로 인간다움을 찾고 실현해 나갈 수 있다.
 ① 거주는 공간 속에서 친근함과 익숙함을 느끼는 것이다.
 ② 거주는 인간 삶의 바탕으로서 정서적 안정을 제공한다.
 ③ 인간은 거주를 통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다.
 ④ 집은 외부로부터 인간을 보호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⑤ 거주는 낯선 공간 안에 내면자신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이다.

• 왜 정답일까?

제시문은 볼노브의 주장이다.
 볼노브에 따르면 거주는 낯선 공간 안에 낯선 자로서 내면적인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03 낙태에 대한 입장 정답 ①

답지 선택률 ① 93% ② 1% ③ 3% ④ 2% ⑤ 1%

| 문제 보기 |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원치 않는 임신술을 한 여성들의 낙태는 허용되어야 한다. 태아는 잠재적 인간에 불과하므로 임신부와 달리 태아가 지니는 생명의 가치는 절대적이지 않다.
 을: 무고한 인간인 태아를 죽이는 낙태는 금지되어야 한다. 인간 생명은 그 자체로 절대적 가치를 지닌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 ① 갑은 태아와 임신부의 생명은 동등한 가치를 갖지 않는다고 본다.
 ② 을은 임신 중단에 대한 여성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본다.
 ③ 갑은 을과 달리 태아를 존엄성을 지닌 인간으로 본다.
 ④ 을은 갑과 달리 낙태가 법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⑤ 갑, 을은 무고한 태아의 생명권이 제한될 수 없다고 본다.

• 왜 정답일까?

갑은 태아가 잠재적 인간에 불과하므로 낙태는 허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이고, 을은 태아의 생명이 절대적 가치를 지니므로 낙태는 금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04 환경 윤리에 대한 다양한 관점 정답 ②

답지 선택률 ① 15% ② 36% ③ 16% ④ 21% ⑤ 12%

| 문제 보기 |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 ~ D에 해당하는 옳은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모든 생명체는 내재적 가치를 지니며, 자기 보존을 위해 고유한 방식으로 각자의 선(善)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다.
 을: 지각, 믿음, 기억, 쾌고 감수 능력 등을 지닌 삶의 주체가 갖는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삶의 주체인 개체들은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
 병: 쾌고 감수 능력은 이익 관심을 갖기 위한 필요 충분조건이다. 어떤 종(種)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나)
 < 보기 >
 ㄱ. A: 쾌고 감수 능력이 동물의 이익 고려를 위한 유일한 조건은 아니다.
 ㄴ. B: 모든 유기체가 지닌 목적을 존중하는 것은 인간의 의무이다.
 ㄷ. C: 고통 능력을 가진 동물은 내재적 가치를 지닌 존재이다.
 ㄹ. D: 도덕적 행위 능력이 없는 존재도 도덕적 지위를 지닐 수 있다.

• 왜 정답일까?

갑은 테일러, 을은 레전, 병은 싱어이다.
 테일러와 레전은 쾌고 감수 능력이 동물의 이익 고려를 위한 유일한 조건은 아니라고 본다. 테일러, 레전, 싱어는 모두 도덕적 행위 능력이 없는 존재도 도덕적 지위를 지닐 수 있다고 본다.

• 왜 오답일까?

- ㄴ, 테일러만 동의할 내용이다.
 ㄷ, 테일러, 레전, 싱어가 모두 동의할 내용이다.

- ④ 을은 갑과 달리 업(業)은 사후의 삶에 영향을 준다고 본다.
 ⑤ 갑, 을은 죽음을 피할 수 없으므로 두려워해야 한다고 본다.

• 왜 정답일까?

갑은 장자, 을은 불교 사상가이다.
 불교에서는 업(業)이 사후의 삶에 영향을 준다고 본다.

06 평화에 대한 갈통과 칸트의 입장 정답 ③

답지 선택률 ① 4% ② 3% ③ 70% ④ 7% ⑤ 16%

| 문제 보기 |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진정한 평화는 모든 종류의 폭력이 없는 상태이다. 폭력에는 테러와 전쟁과 같은 직접적 폭력, 억압과 착취와 같은 간접적 폭력, 그리고 이러한 폭력들을 정당화하는 문화적 폭력이 있다.
 을: 평화 상태가 정초되려면 모든 국가의 시민적 정치 체계는 공화 정제(政體)이여 하고, 국제법은 자유로운 국가들의 연방 체제에 기초해야 하며, 세계 시민법은 보편적 우호의 조건들에 국한되어야 한다.

- ① 갑: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은 평화적이어야 한다.
 ② 갑: 문화적 폭력이 존재하면 진정한 평화가 실현될 수 없다.
 ③ 을: 비민주적 국가에 대한 무력 개입은 정당하다.
 ④ 을: 공화 정체가 수립되어야 영원한 평화의 기틀이 마련된다.
 ⑤ 갑, 을: 진정한 평화 실현을 위해 전쟁은 종식되어야 한다.

• 왜 정답일까?

갑은 갈통, 을은 칸트이다.
 갈통은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도 평화적이어야 하고, 문화적 폭력이 제거되어야 진정한 평화가 실현될 수 있다고 본다. 칸트는 비민주적 국가에 대한 무력 개입을 반대한다.

07 현대 기술에 대한 요나스의 입장 정답 ④

답지 선택률 ① 7% ② 2% ③ 2% ④ 87% ⑤ 2%

| 문제 보기 |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가 강조하는 내용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현대 기술은 상당히 오랫동안 전 지구와 미래 세대에게까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행위의 의도와 목적을 기준으로 선악을 판단하던 전통 윤리학과 전혀 다른 새로운 책임 윤리가 요구된다. 또한 현대 사회에서는 기술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 현대 기술에 대한 윤리적 성찰이 요청된다.

< 보기 >
 ㄱ. 현대 기술에 대한 가치 판단과 반성이 필요하다.
 ㄴ. 현대 기술은 미래 세대의 생존권을 침해할 수 있다.
 ㄷ. 현대 기술이 자연에 미치는 영향만이 책임의 대상이 된다.
 ㄹ. 현대 기술의 영향을 받는 사물간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 왜 정답일까?

제시문은 요나스의 주장이다.
 요나스는 현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와 생태계 전체에 대한 책임의 확장을 주장한다.

08 해의 원조에 대한 롤스와 싱어의 입장 정답 ③

답지 선택률 ① 12% ② 17% ③ 40% ④ 9% ⑤ 22%

| 문제 보기 |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갑: 원조의 목적은 고통받는 사회가 질서 정연한 국제 사회의 성원이 되도록 하는 데 있다. 원조를 제공하는 질서 정연한 사회들은 온정적 간섭주의를 발휘해서는 안 되고, 세심하게 계획된 방법으로 행동해야 한다.

을: 원조의 의무는 원조 대상이 얼마나 멀어져 있느냐에 의해 정해지지 않는다. 우리는 도덕적으로 중요한 다른 것을 희생시키지 않으면서 어떤 나쁜 일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면 의무적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

① 갑: 원조 대상 국가에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은 옳지 않다.
 ② 갑: 교통발는 사회가 아닌 사회들은 원조의 대상이 아니다.
 ③ 을: 원조 대상의 경제력에 관계없이 원조가 수행되어야 한다.
 ④ 을: 세계에 존재하는 해악의 감소 차원에서 원조가 필요하다.
 ⑤ 갑, 을: 원조가 인류의 경제적 평등 실현을 위한 것은 아니다.

• 왜 정답일까?

갑은 롤스, 을은 싱어이다.
 싱어는 원조를 받는 대상자의 경제력을 고려하여 원조가 수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09 분배 정의에 대한 다양한 입장 정답 ④

답지 선택률 ① 11% ② 10% ③ 19% ④ 45% ⑤ 15%

| 문제 보기 |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그림으로 탐구할 때, A~D에 들어갈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갑: 소유 자적의 여부는 소유에 이르는 과정에 비추어 판단해야 한다. 소유 자적에 있는 소유물에 대해서는 분기점의 권리가 부여된다.
 을: 원초적 입장에 있는 사람은 자신이 최악의 상황에 놓일 가능성을 고려하여 최소 손해자의 상황을 개선하는 정의의 원칙들에 합의할 것이다.
 병: 개인인의 행복은 사회 전체의 행복으로 연결된다.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행복을 가져다주는 행위가 옳은 행위이다.

(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탐구한다.

갑의 입장
 을의 입장
 병의 입장

① A: 공정한 절차에 의한 재화 분배는 정의로운가?
 ② B: 개인은 자신의 이익 증진에 관심을 가지는가?
 ③ B: 빈민의 처지 개선을 위한 정책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④ C: 정의의 원칙들 간에 서열을 두는 것이 필요하냐?
 ⑤ D: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이 없어져야 정의로운 사회인가?

• 왜 정답일까?

갑은 노직, 을은 롤스, 병은 벤담이다.
 롤스는 정의의 원칙들 간에 서열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 왜 오답일까?

① 롤스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③ 롤스와 벤담이 모두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10 온건한 인간 중심주의의 윤리 정답 ①

답지 선택률 ① 90% ② 4% ③ 3% ④ 2% ⑤ 1%

| 문제 보기 |

갑, 을이 공통으로 지지할 수 있는 견해를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 인간이 진정으로 열리한다면 자연으로서의 자연을 가늠한 장기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자연을 파괴하기보다는 환경을 보호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을: 한 세대가 자기 세대만을 위하여 이기적 욕망을 무분별하게 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미래 세대에 대해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은 미래 세대의 생존 근거인 환경을 보호하려고 할 것입니다.

< 보 기 >

ㄱ. 인간에게는 자연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
 ㄴ. 환경 보전을 위해 인류 자원의 협력이 필요하다.
 ㄷ. 자연의 모든 존재는 내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ㄹ. 인간을 위한 자연보호는 환경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 왜 정답일까?

갑과 을은 모두 온건한 인간 중심주의를 주장하고 있다. 온건한 인간 중심주의는 인간을 위한 자연 보호와 환경 보전을 주장한다.

• 왜 오답일까?

ㄷ. 생태 중심주의 윤리에 해당한다.

11 칸트의 의무론과 규칙 공리주의 정답 ③

답지 선택률 ① 7% ② 7% ③ 79% ④ 4% ⑤ 3%

| 문제 보기 |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우리가 따라야 할 정전 명령은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 준칙이 보편적 법칙이 될 것을, 그 준칙을 통해 내가 동시에 의욕할 수 있는, 오직 그런 준칙에 따라서만 행위하라."

을: 우리는 최선의 결과를 가져다 줄 행위보다 최선의 결과를 가져다 줄 규칙을 찾아야 한다. 효용의 원리를 적용하여 대안이 되는 규칙들 중에 최대의 기대 효용을 갖는 규칙을 찾고 그것에 따라 행위해야 한다.

① 갑은 개인의 준칙은 보편적 도덕 법칙이 될 수 없다고 본다.
 ② 갑은 자연적 경향성이 동기가 되는 행위를 도덕적이라고 본다.
 ③ 을은 최대 행복을 가져오는 규칙을 행위의 기준으로 삼는다.
 ④ 을은 행위의 결과와 무관한 보편적인 도덕 규칙을 강조한다.
 ⑤ 갑, 을은 행위가 아니라 행위자의 성품에 비추어 도덕성을 평가해야 한다고 본다.

• 왜 정답일까?

갑은 칸트, 을은 규칙 공리주의자이다.
 규칙 공리주의는 최대 행복을 가져오는 규칙을 행위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본다.

12 지식 재산권 정답 ②

답지 선택률 ① 3% ② 86% ③ 3% ④ 3% ⑤ 5%

| 문제 보기 |

갑, 을의 입장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지적 창작물은 어느 누구의 소유물이 될 수 없다. 정보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끊임없이 부가되어 발전하는 것이다. 인류의 공동 자산인 정보는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을: 지식 생산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통해 창작 의욕을 높일 필요가 있다. 저작자는 지식 재산권을 소유하면서도,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하기를 원하는 창작물에 대하여 저작자 표시 등의 조건 하에 누구나 활용하게 할 수 있다.

< 보 기 >

ㄱ. 갑: 정보를 공유할수록 정보의 질이 하락하는 것은 아니다.
 ㄴ. 을: 모든 정보는 공공재이며 대가 없이 공유되어야 한다.
 ㄷ. 을: 정보 창작자의 지식 재산권을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
 ㄹ. 갑, 을: 저작자는 지적 창작물에 대한 소유권을 지닐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 왜 정답일까?

갑은 정보 공유론자, 을은 제한적 정보 사유론자이다.
 정보 공유론자는 정보를 공유할수록 정보의 질이 하락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며, 제한적 정보 사유론자는 정보 창작자의 지식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13 시민 불복종에 대한 소로와 롤스의 입장 정답 ①

답지 선택률 ① 62% ② 4% ③ 22% ④ 9% ⑤ 3%

| 문제 보기 |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에 옳지 않은 것은? [3점]

갑: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 먼저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의 유일한 책무는 나의 양심에 비추어 언제나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행하는 것이다.
 을: 시민 불복종은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시민 불복종은 정치적으로 양심적인 행위이고, 공중의 정의감에 호소하려고 의도된 것이다.

① 갑: 법률의 헌법 위배 여부 판단이 불복종의 최종 목적이다.
 ② 갑: 개인은 양심을 지키기 위해 국가 권력에 불복종할 수 있다.
 ③ 을: 시민 불복종은 정치 체제의 변혁을 의도하지 않는다.
 ④ 을: 부당한 법에 대해 불복종할 때에도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
 ⑤ 갑, 을: 시민 불복종은 불의를 교정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 왜 정답일까?

갑은 소로, 을은 롤스이다.
 소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불복종의 최종 목적이라고 보지 않는다.

14 아리스토텔레스의 분배적 정의 정답 ②

답지 선택률 ① 5% ② 45% ③ 18% ④ 15% ⑤ 17%

| 문제 보기 |

㉠에 들어갈 적절한 내용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고대의 어느 사상가는 "정의는 일종의 비례이며, 비례는 비율의 동등성이다. 사람들이 나누어야 하는 몫은 그들의 관계에 비례할 때 정의롭다."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의하면 A와 B가 맺는 관계가 C와 D가 맺는 관계와 같다고 할 때, 이를 치환하면 A와 C가 맺는 관계는 B와 D가 맺는 관계와 같다. 그래서 A와 C의 합과 B와 D의 합은 그 관계가 같다. 나는 분배적 정의에 관한 이 사상가의 입장을 지지한다. 그런데 재화를 나눔에 있어 어떤 사람들은 음분의 몫보다 더 많이 취하고 어떤 사람들은 더 적게 취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는 ㉠ 옳지 않다.

< 보 기 >

ㄱ. 기하학적 비례에 따라 몫을 분배하지 않으므로
 ㄴ. 사람들에게 재화를 동일하게 분배하지 않으므로
 ㄷ. 산술적 비례에 따라 모두가 중간을 몫을 갖지 못하므로
 ㄹ. 가치에 비례하는 몫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발생하므로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 왜 정답일까?

고대의 어느 사상가는 아리스토텔레스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기하학적 비례에 따라 몫이 분배될 때 분배적 정의가 실현된다고 본다.

15 형벌에 대한 입장 정답 ①

답지 선택률 ① 48% ② 10% ③ 11% ④ 14% ⑤ 17%

| 문제 보기 |

갑, 을, 병 사상가들 모두가 질문에 바르게 대답한 것은? [3점]

갑: 어떤 행위는 사회의 행복을 저해하는 경향에 비례하여 형벌에 대한 요구를 창출할 것이다.
 을: 누군가 타인을 살해하면 그것은 자신을 살해하는 것이다. 보복받만이 형벌의 질과 양을 명확히 제시할 수 있다.
 병: 형벌은 인간의 정신에 가장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인상을 주면서 수행자에게는 가장 작은 고통을 주어야 한다.

	질문	대답		
		갑	을	병
①	형벌은 사회적 선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인가?	예	아니요	예
②	형벌의 방법은 효용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는가?	예	아니요	아니요
③	형벌은 범죄자에게 고통을 유발하는 악인가?	아니요	예	예
④	범죄자에 대한 형벌은 법률을 통해서 집행되어야 하는가?	아니요	예	아니요
⑤	형벌의 크기는 범죄로 인해 발생하는 해악에 비례해야 하는가?	아니요	예	아니요

• 왜 정답일까?

갑은 벤담, 을은 칸트, 병은 베카리아이다.
 벤담과 베카리아는 형벌이 사회적 선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지만, 칸트는 형벌이 사회적 선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고 본다.

• 왜 오답일까?

② 베카리아는 형벌의 방법은 효용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본다.

16 니부어의 사회 윤리 정답 ①

답지 선택률 ① 74% ② 5% ③ 9% ④ 8% ⑤ 4%

| 문제 보기 |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지나친 정치적 현실주의에서 제시하는 권력 간의 균형은 잠정적 평화만을 가져올 뿐이다. 한편 도덕주의에서 강조하는 이익과 권력의 합리적 조정은 역사와 전통으로 정당화되는 사회적 물리나 은밀한 강제력을 조정하기 어렵게 한다. 올바른 정치적 도덕성은 합리적이고 도덕적인 요소들에 부합되는 강제력을 권고함으로써, 그리고 강제력이 사용되는 목적을 밝히함으로써 갈등의 악순환에 빠져 있는 사회를 구원할 수 있다.

① 정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 강제력은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② 올바른 정치적 도덕성은 어떠한 형태의 폭력도 포함할 수 없다.
 ③ 구성원들의 도덕적인 양심이 사회 구조의 정의로움을 결정한다.
 ④ 집단 간의 힘이 균형적인 상태에 도달하면 영구 평화가 달성된다.
 ⑤ 합리적 개인들의 자발적인 조정으로만 불의를 극복할 수 있다.

• 왜 정답일까?

제시문은 니부어의 주장이다.
 니부어는 정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 강제력은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본다.

17 합리적 소비와 윤리적 소비 정답 ②

답지 선택률 ① 4% ② 64% ③ 22% ④ 4% ⑤ 6%

| 문제 보기 |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소비의 목적은 소비를 통한 만족감의 극대화에 있습니다. 소비자는 최소 비용으로 최대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소비만을 추구해야 합니다.
 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환경 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자원 남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 정의와 환경 등을 고려하는 소비가 필요합니다.
 갑: 아닙니다. 비용과 편익을 고려하여 소비를 하면 자원이 효율적으로 분배되어 자원 남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을: 그러한 주장은 시장 경제 논리만을 강조하는 것이므로 자원 남용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① 시장 경제 논리는 비용 대비 최대 편익을 강조하는가?
 ② 합리적 소비만으로 자원 남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③ 소비 활동을 통해서 자원 남용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가?
 ④ 소비자는 상품에 관한 정보를 바탕으로 소비해야 하는가?
 ⑤ 자원 남용 문제의 해결을 위해 최대 비용의 지출이 필요한가?

• 왜 정답일까?

갑은 합리적 소비를, 을은 윤리적 소비를 중시하는 입장이다.
 갑은 합리적 소비만으로 자원 남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지만, 을은 윤리적 소비에 의해서 자원 남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18 예술에 대한 순자와 플라톤의 관점 정답 ②

답지 선택률 ① 3% ② 80% ③ 4% ④ 7% ⑤ 6%

| 문제 보기 |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갑: 음악이 화평해야 백성이 화합하며 방종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옛 성왕은 "음란한 노래와 사악한 음악이 좋은 음악을 어지럽히지 못하게 하라."라고 하였다.
 을: 시가(詩歌) 교육은 영혼 안에 있는 지혜를 사랑하는 것과 관련된 감각들을 일깨워야 한다. 시민들은 좋은 성품의 상(象)을 작품 속에 새겨 놓도록 해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의 작품 활동은 금지되어야 한다.

① 갑: 음악은 백성을 교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② 갑: 음악은 정치사회적 요구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③ 을: 덕성을 함양하기 위해 시가 교육이 필요하다.
 ④ 을: 미적 가치의 추구가 진리 탐구에 도움이 된다.
 ⑤ 갑, 을: 예술 활동에 대한 외적 규제가 필요하다.

• 왜 정답일까?

갑은 순자, 을은 플라톤이다. 순자는 음악이 백성을 교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보지만, 음악이 정치사회적 요구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고 보지는 않는다.

19 직업에 대한 칼뱅과 마르크스의 입장 정답 ④

답지 선택률 ① 3% ② 3% ③ 10% ④ 81% ⑤ 3%

| 문제 보기 |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 신은 각 사람에게 독특한 생활 양식에 따라 의무를 부여하고 다양한 생활들을 소명(召命)으로 주셨다. 아무런 힘은 일이라도 이것을 소명으로 알고 순종하면 모든 일은 신 앞에서 빛날 것이다.
 을: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은 자유롭고 의식적인 활동인 노동을 왜곡함으로써 인간의 자질이 온전하게 실현되는 것을 가로막는다. 자본주의에서는 생산성 향상을 위해 작업 과정을 세분화함에 따라 노동의 소외가 심화된다.

< 보 기 >

ㄱ. 갑: 노동의 궁극적 목적은 부의 축적에 있다.
 ㄴ. 갑: 신의 소명으로서 주어진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
 ㄷ. 을: 노동자는 자아실현을 위해 문업에 참여해야 한다.
 ㄹ. 을: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는 소외를 피할 수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 왜 정답일까?

갑은 칼뱅, 을은 마르크스이다. 칼뱅은 신의 소명으로서 주어진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 보며,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는 소외를 피할 수 없다고 본다.

20 성에 대한 다양한 입장 정답 ③

답지 선택률 ① 10% ② 6% ③ 76% ④ 4% ⑤ 4%

| 문제 보기 |

그림은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학생 답안의 ㉠~㉢ 옳지 않은 것은?

서술형 평가

㉠ 문제: 갑, 을, 병의 입장을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갑: 성의 유일한 전제 조건은 사랑이므로, 사랑이 동반된 성적 관계는 언제나 허용될 수 있다.
 을: 성은 쾌락을 위한 것이며, 책임 의식을 지닌 성인이 자발적으로 합의한 성적 관계는 용인되어야 한다.
 병: 성은 결혼 이후에 자녀 출산과 관련을 가질 경우에만 도덕적이고 온전한 것이 된다.

㉡ 학생 답안
 갑은 ㉠ 성적 쾌락을 추구하는 성을 부정적으로 보고, 을은 ㉡ 사랑이 없는 성도 허용될 수 있다고 보며, 병은 ㉢ 사랑을 성이 도덕적이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라고 본다. 한편 ㉣ 갑, 을은 병과 달리 결혼과 무관한 성도 허용될 수 있다고 보고, ㉤ 병은 갑, 을과 달리 혼전 순결을 지켜야 한다고 본다.

① ㉠ ② ㉡ ③ ㉢ ④ ㉤ ⑤ ㉥

• 왜 정답일까?

갑은 중도주의, 을은 자유주의, 병은 보수주의의 입장에 해당한다.
 보수주의의 입장에 따르면, 사랑은 성이 도덕적이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은 아니다.

03회
2018학년도 3월

01 ④
02 ⑤
03 ③
04 ①
05 ②
06 ①
07 ④
08 ①
09 ④
10 ⑤
11 ③
12 ③
13 ②
14 ①
15 ③
16 ②
17 ②
18 ④
19 ⑤
20 ③

채점결과

• 실제 걸린 시간 : 분
• 맞은 문항수 : 개
• 틀린 문항수 : 개
• 헛걸린 문항 :

01
메타 윤리학과 규범 윤리학
정답 ④

답지 선택률
① 9%
② 16%
③ 5%
④ 64%
⑤ 6%

| 문제 보기 |

①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는 윤리학의 목적을 도덕적 논의의 의미론적, 논리적, 인식론적 구조를 분명하게 이해하는 데 두어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윤리학의 목적을 보편적인 도덕 원리를 탐구하여 실제 삶의 다양한 윤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내가 보기에 이러한 입장은 윤리학이
①

① 윤리적 삶의 가치와 방향을 제시해야 함을 간과하고 있다.
② 도덕적 행위를 위한 도덕 원리를 세우야 함을 간과하고 있다.
③ 도덕 법칙을 정립하여 만민에게 적용해야 함을 간과하고 있다.
④ 도덕 언어의 분석을 핵심 과제로 삼아야 함을 간과하고 있다.
⑤ 현실 도덕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함을 간과하고 있다.

• 왜 정답일까?

①에는 메타 윤리학의 입장에서 규범 윤리학에 대해 평가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메타 윤리학은 현실의 도덕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된 관심을 두지 않으므로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탐구에 그칠 뿐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따라서 ④ '도덕 언어의 분석을 핵심 과제로 삼아야 함을 간과하고 있다.'가 적절한 진술이다.

★ 수능 실전 풀이 Tip ★

메타 윤리학은 도덕적 용어들의 개념을 분석하고, 도덕 판단의 타당성을 입증하거나 정당화하는 것을 윤리학의 주요 과제로 삼는다. 메타 윤리학의 대표적인 입장들에는 “도덕적 진리는 인식될 수 있으며, 도덕적 진술은 참이거나 거짓이다.”라고 주장하는 인지주의와 “인식될 수 있는 도덕적 진리는 없으며, 도덕적 진술은 참도 거짓도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비(非)인지주의 등이 있다.

02
직업에 대한 다양한 입장
정답 ⑤

답지 선택률
① 3%
② 6%
③ 3%
④ 9%
⑤ 79%

| 문제 보기 |

동양 사상이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선비는 일정한 생업이 없더라도 일정한 마음[恒心]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백성은 일정한 생업이 없으면 이로 인해 일정한 마음을 가질 수 없다.
을: 농부는 밭일에, 상인은 장사에, 목수는 그릇 만드는 일에 정통하지만 수장(首長)은 될 수 없다. 오직 예(禮)에 정통한 사람만이 수장이 될 수 있다.

① 갑: 군주는 백성의 생업 보장보다 법적 규제에 힘써야 한다.
② 갑: 직업 종사자는 누구도 일정한 마음(恒心)을 지닐 수 없다.
③ 을: 정신을 쓰는 노동보다 육체를 쓰는 노동이 우위에 있다.

④ 을: 무위자연의 도(道)를 본받아 직업을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
⑤ 갑, 을: 생산과 통치에 대한 역할의 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 왜 정답일까?

갑은 맹자, 을은 순자이다.
맹자는 향산이라 하여 국가는 백성에게 생업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노동에는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이 있으며 각각에 맞는 사람이 일을 분업해야 한다고 보았다. 순자는 분업을 통해 생산력을 높이고, 각기 다른 영역에서 전문성을 발휘하는 것을 중시한다.
두 사상은 모두 각 사람들의 능력과 재능을 고려하여 사회적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고 보았다.

03
시민 불복종에 대한 롤스의 입장
정답 ③

답지 선택률
① 21%
② 27%
③ 45%
④ 5%
⑤ 2%

| 문제 보기 |

다음은 어느 사상가의 주장이다. ㉠에 대한 이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정치의로운 사회는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들 사이에서 사회 협동체의 원칙이 존중되는 사회이다. ㉠은/는 이러한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법이나 정책을 변화시킬 목적으로 행해지는 것이다. 이는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이루어지는 공공적이고 양심적이기는 하지만 법에 반하는 정치적 행위이다.

① 불합리한 모든 법률과 정책을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② 불의한 국가 체제의 변혁을 목적으로 행해져야 한다.
③ 사회의 다수자가 갖는 정의관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④ 비폭력적이고 비공개적인 방식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⑤ 개인의 종교적 신념을 추구하는 행위를 포함해야 한다.

• 왜 정답일까?

제시문은 롤스의 주장이고 ㉠은 '시민 불복종'이다.
롤스의 입장에서 시민 불복종은 부정의한 법이나 일부 정부 정책에 변화를 가져올 목적으로 행해지는 행위이다. 롤스는 시민 불복종은 정치적 신념의 표현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어디까지나 사회적 다수에 의해 공유된 정의관을 바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04
과학 기술 윤리
정답 ①

답지 선택률
① 92%
② 3%
③ 2%
④ 2%
⑤ 1%

| 문제 보기 |

그림의 강연자가 강조하는 내용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기술은 기술을 실현시키는 존재와는 독립된 것으로서 단지 도구에 불과한 것이며, 그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닙니다. 기술이 스스로 인간에게 광기를 무릴 수 있다든가, 기술에 의해 인간이 무분화될 수 있다는 말은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이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고, 인간이 기술을 어떤 조건 아래 놓는가 하는 것입니다.

< 보기 >

ㄱ. 기술의 부정적 결과는 인간에 의해 생겨날 수 있다.
ㄴ. 기술은 인간과 사회를 지배하려는 속성을 지닌 악이다.
ㄷ. 기술 자체를 도덕 판단의 대상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ㄹ. 인간은 기술로부터 어떠한 좋은 것도 만들어 낼 수 없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 왜 정답일까?

그림의 강연자는 야스퍼스이다.
야스퍼스는 기술을 가치중립적으로 인식해야 하며 선악 판단의 대상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야스퍼스에 따르면

기술은 인간 사회와 무관하게 그 자체의 발전 논리를 가지고 있으며, 선도 악이고 악도 아닌 수단일 뿐이며 단지 인간의 목적 설정에 따라 긍정적인 효과 혹은 부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았다.

05
양성 평등 윤리의 입장
정답 ②

답지 선택률
① 6%
② 86%
③ 3%
④ 2%
⑤ 3%

| 문제 보기 |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여성의 운명은 법률, 제도, 풍습, 여론 등에 의해 주도 면밀하게 형성되어 왔다. 남성들이 여성으로 하여금 타자(他者)로서 살도록 강제하는 사회에서 여성은 자신이 자주적이고 자유로운 존재임을 발견해야 한다.
을: 여성이 지닌 도덕적 관심의 본질은 남성과 다르다. 여성은 인간관계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여성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않고 이타적으로만 행동하는 것은 인간관계에서 지녀야 할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

< 보기 >

ㄱ. 갑: 여성은 주체적 존재라는 점에서 남성과 다르지 않다.
ㄴ. 갑: 남녀의 성역할을 전통과 관습에 따라 규정해야 한다.
ㄷ. 을: 여성의 도덕적 특성인 배려와 공감을 중시해야 한다.
ㄹ. 갑, 을: 여성과 남성의 도덕적 지향성은 양립가능하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 왜 정답일까?

갑은 보부아르, 을은 길리건이다.
ㄱ. 보부아르는 여성을 남성과 마찬가지로 주체적이고 자유로운 존재라고 보았다.
ㄷ. 길리건은 배려와 공감, 책임 등을 여성의 도덕적 특성이라고 보았다.

06
부부 관계의 윤리
정답 ①

답지 선택률
① 76%
② 6%
③ 12%
④ 4%
⑤ 2%

| 문제 보기 |

㉠의 인간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은/는 인류의 시작이므로 지극히 친밀한 사이지만 지극히 조심해야 할 관계이다.
㉠은/는 두 성체의 결합이니, 사람이 태어나게 되는 시초이고 만 가지 복록의 근원이다.

① 예(禮)로서 서로를 공경해야 하는 보완적 관계이다.
② 자연적 친애에 기초하는 상호 대등한 협력관계이다.
③ 효도와 자애를 서로에게 실천해야 하는 관계이다.
④ 상호 간 항렬(行列)을 따져 법도를 지키는 관계이다.
⑤ 동기간(同氣間)으로서 상하의 질서가 적용되는 관계이다.

• 왜 정답일까?

①에 들어갈 말은 '부부'이다.
부부는 모든 인간관계의 시작으로, 예로서 서로를 공경하고 존중해야 하는 관계이다.

07
형벌에 관한 다양한 입장
정답 ④

답지 선택률
① 3%
② 2%
③ 16%
④ 58%
⑤ 21%

| 문제 보기 |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필요 이상의 잔혹한 형벌은 사회 계약의 본질과 상반된다. 사회에 미친 손해를 노동으로 속죄하는 것을 오래 보여 주는 형벌이 사형보다 효과적인 범죄 억제책이다.
을: 살인범에게 법적으로 집행되는 사형 외에는 범죄와 보복의 동등성은 없다. 시민 사회가 모든 구성원들의 동의로 해체될 때에도 감옥에 있는 살인범은 처벌되어야 한다.

① 갑: 종신형은 사형보다 형벌의 실효성이 적고 비인간적이다.
② 갑: 살인범에게는 생명 박탈의 처벌 이외의 다른 대안은 없다.

③ 을: 사형은 살인범의 인격을 수단으로 대우하는 것일 뿐이다.
④ 을: 평형의 원리에 입각하여 처벌의 양과 질을 결정해야 한다.
⑤ 갑, 을: 처벌의 최종 목적을 범죄 예방과 교화에 두어야 한다.

• 왜 정답일까?

갑은 베카리아, 을은 칸트이다.
칸트는 동등성의 원리, 즉 평형의 원리에 입각하여 살인범을 사형에 처하는 것이 응당하다고 보았다. 칸트는 응보가 형벌의 본질이므로 오히려 사형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 왜 오답일까?
베카리아는 사형이 종신형에 비해 실효성이 적고 비인간적인 형벌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개인이 사회 계약의 과정에서 자신의 생명을 국가에 위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 역시 개인의 생명을 빼앗을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08
식생활 윤리
정답 ①

답지 선택률
① 92%
② 2%
③ 3%
④ 2%
⑤ 1%

| 문제 보기 |

①에 들어갈 적절한 진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〇〇신문 〇〇〇〇년 〇월 〇〇일
우리는 인간과 인간 이외의 존재에 대한 책임의 문제를 숙고해야 한다. 그런데 어떤 지역에서는 맛있는 푸아그라를 얻기 위해 거리의 위에 관을 꽂아 강제로 사료를 주입하는 고통을 준다. 또한 우유 생산을 늘리기 위해 성장 호르몬을 소에게 투입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생산된 유제품은 인류에게 심각한 질병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①

< 보기 >

ㄱ. 생명에 대한 인위적인 개입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
ㄴ. 동물에게 과도한 고통을 주는 행위를 삼가야 한다.
ㄷ. 생태적 지속성보다 경제적 효율성을 고려해야 한다.
ㄹ. 식량 증산을 위해 공장식 동물 사육을 확대해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 왜 정답일까?

칼럼은 미식과 식량 증대를 목적으로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생명에 대해 개입하면서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에는 생태적 지속성을 중시하는 입장에서 생명에 대한 인위적 개입을 자제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갈 수 있다.

09
플라톤, 에피쿠로스, 하이데거의 죽음관
정답 ④

답지 선택률
① 9%
② 3%
③ 9%
④ 76%
⑤ 3%

| 문제 보기 |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죽음은 영혼이 육체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영혼은 육체를 떠나 될 수 있는 대로 그곳과 상관하지 않을 때 가장 잘 사유하게 된다.
을: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에 익숙해져야 한다. 좋고 나쁨은 감각에 달려 있는데 죽음은 바로 모든 감각의 상실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병: 죽음은 현존재에게 던져진 끝으로서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며 타인이 대신할 수 없는 것이다. 죽음으로 미리 달려가 봄으로써 참된 실존을 깨달을 수 있다.

① 갑은 현실 세계와 죽음 이후의 세계를 구분할 수 없다고 본다.
② 을은 죽음 이후의 삶을 위해 선행을 습관화해야 한다고 본다.
③ 병은 현존재의 유한성 때문에 죽음을 자각할 수 없다고 본다.
④ 갑은 율과 달리 죽음 이후에 참된 진리에 이를 수 있다고 본다.

⑤ 을은 병과 달리 죽음을 인간이 회피해야 할 고통이라고 본다.

• 왜 정답일까?

갑은 플라톤, 을은 에피쿠로스, 병은 하이데거이다.
플라톤은 죽음을 영혼이 육체의 구속에서 해방되어 이데아의 세계로 나아가는 과정으로 죽음 이후에 참된 진리의 세계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았다.

★ 수능 실전 풀이 Tip ★

에피쿠로스는 죽음 이후에는 아무 것도 지각할 수 없으므로 인간이 죽음을 두려워 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하이데거는 현존재인 인간이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간 스스로 인식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서는 죽음의 불안 앞에서 도피하지 않고 그것을 선구(先驅)하여 죽음이 인간이 가진 가장 확실한 가능성을 깨달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0
분배 정의에 관한 다양한 입장
정답 ⑤

답지 선택률
① 7%
② 14%
③ 11%
④ 25%
⑤ 43%

| 문제 보기 |

(가)의 사상이 갑, 을, 병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할 때, A ~ 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갑: 정의란 준법적인 것과 공정한 것을 포함한다. 사회적 제도의 본래는 기하학적 비례에, 시민들 간의 분쟁 해결은 산술적 비례에 합치해야 한다.
을: 정의의 원칙은 원초적 합의의 대상이다. 이 원칙은 자유롭고 합리적인 사람들이 평등한 최초 입장에서 공동체의 기본 조건을 규정한 것이다.
병: 정의론의 핵심은 소유 권리에 관한 정의이다. 정의의 원리에 따라 취득한 소유물에 대한 권리가 자신에게 있다면, 그 본래는 정의로운 것이다.

(나)

사상가 갑, 을, 병의 입장을 탐구한다.

A
아니요
예

B
아니요
예

C
아니
예

D
아니
예

갑의 입장
을의 입장
병의 입장

<별첨>
□ 출발 조건
◇ 판단 내용
○ 판단 방향
□ 사상가의 입장

< 보기 >

ㄱ. A: 기하학적 비례로써 시정적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가?
ㄴ. B: 최소 수혜자를 위한 재분배 정책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
ㄷ. C: 중립의 원리보다 기회 균등의 원리를 추구해야 하는가?
ㄹ. D: 최소 국가에서 분배적 정의가 실현될 수 있는가?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 왜 정답일까?

갑은 아리스토텔레스, 을은 롤스, 병은 노직이다.
롤스는 분배는 자유 경쟁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 이루어지되, 모든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공정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최소 수혜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우선적인 관심을 둬으로써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였다. 반면 노직은 이러한 재분배 정책에 반대하였다.

• 왜 오답일까?

ㄱ. 아리스토텔레스는 산술적 비례에 의해 시정적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

11
소수자 집단 우대 정책
정답 ③

답지 선택률
① 3%
② 3%
③ 89%
④ 4%
⑤ 1%

| 문제 보기 |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우리 사회의 차별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과거의 차별로 인해 고통받은 사람들을 우대해야 합니다.
을: 우리 사회의 차별은 사라져야 합니다. 그러나 과거의 차별을 근거로 특정 집단을 우대하는 것은 역차별입니다.
갑: 과거의 차별에 대한 보상은 역차별이 아니라 출발선을 같게 하려는 것입니다. 차별받았던 집단에 대한 배려 없는 공정한 사회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을: 과거의 차별에 대해 잘못이 없는 현재대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부당합니다. 이것은 잘못이 없는 사람에게 벌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① 업적과 성과를 기준으로 한 사회적 차별은 정당한가?
② 소수자 집단을 사회적으로 차별하는 것은 불공정한가?
③ 과거의 차별 때문에 고통받는 집단을 우대해야 하는가?
④ 사회적 차별을 철폐해야 공정한 사회를 이룰 수 있는가?
⑤ 특정 집단에 대한 보상은 능력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가?

• 왜 정답일까?

갑은 과거의 차별로 인해 고통받는 소수자 집단을 우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을은 이러한 소수자 집단에 대한 우대 정책이 사회적 역차별을 초래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③ 과거의 차별 때문에 고통받는 집단을 우대해야 하는가?가 적절하다.

12
환경 윤리에 대한 관점
정답 ③

답지 선택률
① 6%
② 15%
③ 49%
④ 15%
⑤ 15%

| 문제 보기 |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 ~ 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갑: 평등의 원리는 어떤 존재의 고통을 다른 존재의 고통과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이다. 어떤 존재가 고통을 느낄 수 없다면 고려해야 할 바는 없다.
을: 무생물일지라도 아름다운 것을 파괴하는 행위는 인간이 지닌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에 위반되며, 도덕성을 촉진하는 자연적 감정을 약화시킨다.
병: 생명체를 목적론적 활동의 중심이 되게 하는 것은 자신의 선을 실현하도록 방향 지워진 유기체의 작용이 갖는 일관성과 통일성이다.

(나)

A
B
C
D

A: 갑만의 입장
B: 을만의 입장
C: 병만의 입장
D: 갑, 을, 병의 공통 입장

< 보기 >

ㄱ. A: 인간과 동물이 선호하는 이익 관심의 대상은 동일하다.
ㄴ. B: 이성적 존재만이 도덕적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ㄷ. C: 모든 생명체는 의식 유무와 상관없이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
ㄹ. D: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존재를 잔혹하게 다루는 행위는 잘못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 왜 정답일까?

갑은 싱어, 을은 칸트, 병은 테일러이다.
테일러는 모든 생명체는 의식 유무와 상관없이 생존, 성장, 발전, 번식 등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목적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모든 생명체는 고유의 선(善)을 지니며, 인간이 자연에 대해 부여하는 가치와 무관하게 내재적 가치를 가지므로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수능 실전 풀이 Tip ★

싱어는 인간의 이익 관심의 대상과 동물의 이익 관심의 대상이 동일하지 않다고 본다.
칸트는 무생물인 광물이나 생명에 있는 식물, 동물을 함부로 다루는 것에 반대한다. 하지만 그 이유는 그것들이 그 자체로 도덕적으로 존중받을 만한 가치를 지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들을 함부로 다루는 행위가 인간성을 해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2022 REAL ORIGINAL

수험생의 마음을 담다!

수험생의 의견을 반영해 구성과 해설까지 더욱 새롭고
강력한 교재로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ALL
NEW

Questions & Answers [BEST 6]

price [가격]

- Q 수험생 부담을 낮춘 착한 가격이면 좋겠어요.
A 해설부터 교재의 크기까지 업그레이드하면서 제작비는
늘어났지만, 가격을 대부분 동결해 수험생 부담은 NO!

size [크기]

- Q 조금 불편해도 모의고사는 시험지 크기가 좋아요.
A 실제 시험지와 똑같은 8절 크기의 교재로 만들어 실전과
동일한 느낌으로 문제를 풀어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planation [해설]

- Q 해설편에 문제까지 들어있으면 편리할 것 같아요.
A 해설편과 문제편을 동시에 펼쳐 학습하지 않아도 OK!
전학년, 전과목 해설편에 문제와 보기를 수록했습니다.

choice [선택]

- Q 선택 과목도 2022학년도 수능 체제에 맞춰 주세요.
A 국어, 수학 모두 신수능을 반영하여 선택 과목을 재구성
하였으며, 국어 매체 문제는 신출제 후 재구성했습니다.

example [예시]

- Q 2022 수능 예시 문항도 수록해 주세요.
A 전학년 국어, 수학 교재에 수능 예시 문항을 수록하여
신수능 출제 유형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paper [종이]

- Q 문제를 풀 때 뒷면의 글씨가 안 보이면 좋겠어요.
A 최상급 종이를 사용해 뒷면의 글씨 비침이 없어 눈도
피곤하지 않고, 종이가 울거나 잘 찢어지지 않습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 반영] 새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2021학년도 문제도 ALL 수록했으며 총 35회분을 수록해 2022 수능을 완벽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9 788968 982231
ISBN 978-89-6898-223-1

정가 10,000원

리얼 오리지널 수능기출 5개년 [35회] 모의고사 [고3] 생활과 윤리

발행처 수능 모의고사 전문 출판 입시플라이 발행일 2020년 12월 28일(제 1쇄) 등록번호 제 2017-22호
홈페이지 www.ipsify.com 대표전화 1566-9939 구입문의 02-433-9975 내용문의 02-433-9979 팩스 02-433-9905
발행인 조용규 편집책임 양창열 김유 이해민 김선영 물류관리 김소희 이혜리 주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용마산로 615 정민빌딩 3층

※ 이 책에 실린 모든 내용과 편집 형태에 대한 저작권은 입시플라이에 있습니다. 무단으로 복사·복제를 일절 금합니다.
※ 페이지가 누락되었거나 파손된 교재는 구입하신 곳에서 교환해 드립니다. ※ 발간 이후 발견되는 오류는 홈페이지 정오표를 통해서 알려드립니다.